12일 Market Index
코스피 5342.73 (-32.63)
코스닥 696.53 (-8.57)
금리(국고채 3년) 3.729 (0.000)
환율(원·달러) 1330.7 (-2.9)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뛰는 집값에 전세대란까지 '공급난 경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내년 전국 매매가 2% 상승 전세가격은 4.5% 상승 전망 공급·건설경기 회복도 더뎌



李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시삽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충남지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 대통령, 이 회장, 박문성 삼성전자 우수직원.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내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셋값은 공급 부족에 실거주 중심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의 두 배 넘게 뛸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7년 건설·자재·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 전세가격은 4.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매매가 상승률은 2.5%에서 낮아지는 반면 전세가 상승률은 3.6%에서 높아진다.

◆ **집값, 수도권 3.0%↑ 전망**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3.0%, 지방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전·월세 가격 상승과 서울 중심의 매수 수요가 가격을 지지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영향을 받는 영통·동탄·기흥 등은 특별급여 지급 등 구매력 개선 요인도 있어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가격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 상승률은 올해 연간 전망치인 4.8%보다 낮아질 것으로 봤다. 그동안 누적된 집값 부담과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출한도 제약 등이 추가 매수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세제 등 정책 변화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방은 수요가 있는 입지부터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입주율이 수도권보다 낮고 미분양 증감도 지역마다 다른 만큼 지방 시장 전체의 회복보다는 산업기반·입지·신규 공급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은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됐다. 올해 연간 전망치도 3.6%에 달하지만 내년 전망은 4.5% 상승이다.

김 연구위원은 "2023년 급감한 착공이 준공·입주 감소로 이어지면서 신규 전세 공급이 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1주택 실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었고, 매수를 미루는 수요도 전세가격을 끌어 올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 삼성 반도체 팹 건설현장 방문

"충청·호남·영남 차질없이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의 삼성전자 반도체 첨단패키징 팹(Fab) 건설 현장을 찾아 "충청권뿐 아니라 호남권과 영남권의 모든 투자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날 착공을 기념한 사업은 아산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팹과 첨단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세종의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기판 제조시설 등 3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이곳 충청에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바꿀 3개의 첨단 투자사업이 힘차게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착공식은 '대한민국 초격차, 충청에서 펼쳐집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충청권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에 총 46조원을 투자해 HBM 생산라인 5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 패키징 팹에 6조원, 첨단 장비 투자비 40조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업과 정부는 바로 이곳 충청에서 초격차 산업강국을 향한 담대한 투자계획을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우리는 그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현장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젠슨 황 사퇴 임박… 'AI 동맹' K-산업계 촉각

SK하이닉스 공급전략 조정 변수 가능성 삼성전자 HBM 등 수주 전략에 영향 공급 다변화땐 물량확대 기회



지난 7월 정의선 회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 사진을 찍고있다. /엔비디아 X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사생활 논란과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으로 거취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혼외관계를 인정한 데 이어 회사 내부 임원과의 추가적인 부적절한 관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독립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황 CEO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와 'AI 동맹'을 구축해온 국내 기업들은 이번 이슈는 개인적인 사항이고 최고경영진 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의 실행과 협력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반도체·AI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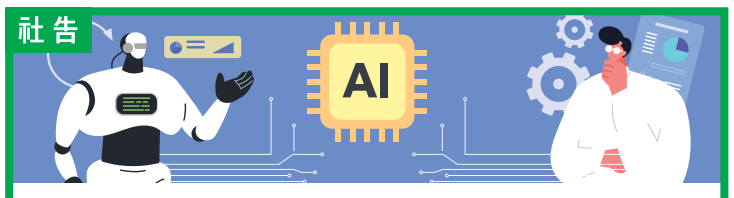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와 가장 밀접한 사업 관계를 구축한 곳은 SK그룹이다. 양사는 지난 7월 5000억달러 이상의 AI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을 아우르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DSX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대 2GW 규모 AI 클라우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팩토리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와 장기 메모리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HBM을 비롯한 차세대 AI 메모리 공동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로드맵에 맞춰 메모리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인 만큼 황 CEO의 교체로 제품 개발 우선순위나 공급 전략이 조정될 경우 협력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양사는 HBM 공급을 넘어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지난 6월 젠슨 황 CEO와 만나 HBM4E·HBM5 등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장기 공급 협력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HBM4와 서버용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SOCAMM 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4나노와 8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과 AI 가속기 관련 반도체 생산에 협력하고 있으며, 차세대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황 CEO가 물러날 경우 삼성전자는 기존 HBM 공급 확대뿐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수주 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엔비디아의 메모리 공급망 다변화 기조가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공급 물량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정점식 "디지털자산 발전 위해 시장 신뢰 뒷받침돼야…관련 입법 나설 것" /사진 뉴시스

▲조국혁신당 "한덕수 석방 전 조희대 탄핵하고 직무 정지시켜야"

▲개혁신당 "국민의힘에 '조작기소 특검' 연대 투쟁 제안"

▲신종마약 '야바' 국내제조 첫 적발…태국인 등 16명 검거

▲최근 6개월 강수량, 평년의 78.5%… 전국 58곳 '기상가뭄'

▲송파구, 담배소매점 보행거리 간편 조회…공무원이 AI로 개발

당정, 금융사 CEO 연임요건 강화… “참호구축 원천 차단”

지배구조 개선 방향 당정협의
임추위·주총 문턱 단계적 상향
“셀프·장기연임 등 관행 개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연임 시 의결 요건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4분의 3 이상 찬성,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등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CEO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주주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임추위와 이사회 독립성, 책임성 강화로 현행 CEO가 참호를 구축하는 걸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며 “핵심 상황은 전 금융회사의 독립이사제를 독립하고 CEO 후보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은행지주 CEO 장기 연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주총회에서 CEO 선임, 임추위,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으로 선임될 때는 임추위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고, 다시 연임될 경우 4분의 3 이상으로 하는 방안으로 요건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주총으로 넘어가면 선임 시엔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표결이 있어야 한다.

연임하게 될 경우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이후 또 다시 연임할 경우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과 함께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기관 투자자 독립이사 후보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가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도 거론됐다. 성과보수 이연 지급 기간 비율 강화, 성과 보수환수제 도입을 통해 성과 보수 관련 주주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퇴직금 환수 방안도 논의됐냐’는 질문에 “성과보수금과 퇴직금은 다른 제도라 여기 포함 대상에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CEO가 가까운 인사로 이사회를 꾸리고 그 이사회가 다시 CEO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이 반복돼왔다”며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는 받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관행도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하는 개선방안은 경영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며 “CEO 한 사람에게 쏠린 권한을 이사회와 주주에게 돌려드리고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스스로 견제할 수 있게 하며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현직 CEO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이사 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 이사로 구성하고 은행 지주 CEO의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주주에게 독립 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독립 이사 간담회 의무화 및 이사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대폭 제고하겠다”면서 “임원 보수 지급 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와 성과 보수 환수제를 도입해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합리적 보수 체계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독립이사 추천부터 CEO 연임, 임원 보수까지 주주가 금융회사의 핵심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며 “주주의 참여와 감시가 살아있는 지배구조는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CEO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직 CEO의 임추위 및 경영 승계 절차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금지하고 독립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독립 이사들이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 활동 내역 공시 강화, 평가 체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서울 집값 92주째 상승… 성북구 0.39% ↑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 0.07% ↑
반도체 거점 인접 경기 남부지역 강세

서울 집값이 92주째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에 이어 성동·강동구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향 조정 거래와 관망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 상승·하락이 혼재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전주 -0.39%에서 -0.25%로, 서초구는 -0.37%에서 -0.26%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반면 송파구는 -0.17%에서 -0.35%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잠실·가락동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 지역에 합류했다. 성동구는 전주 0.07% 상승에서 0.02% 하락으로 전환했다. 옥수·하왕십리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강동구도 전주 0.03% 상승에서 0.01%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전주 3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성북구는 전주 0.30%에서 0.39%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릉·돈암동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다.

노도강 3개 구도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0.14%에서 0.20%로, 도봉구는 0.20%에서 0.22%로, 강북구는 0.26%에서 0.32%로 각각 상승했다.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관악구는 0.20%에서 0.23%로 상승폭을 키운 반면 금천구는 0.30%에서 0.27%로, 구로구는 0.25%에서 0.24%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20%에서 0.2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상승률의 3배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거점과 인접한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용인시 기흥구는 영덕·동백동을 중심으로 0.63% 상승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0.60%)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으며 경기 평균의 3배 수준이다. /뉴시스

김정관 장관 “체코원전사업 복원·정상화”

내년 7월 이전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무산 위기에 처한 체코원전사업의 복원·정상화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상대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내년 7월 이전에 신규 시공사 선정도 마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및 2029년 11월 착공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지키고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전 공기업이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신규시장에 신규노형으로 진출하는 경험을 기업 간 공유하고, 정부가 행정적·외교적 지원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모색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또 “체코 정부와도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와 수시 면담, 국장급 주간회의 등 각급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해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27년 7월 신규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한수원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일부 역무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업무 수행이 시급한 부대시설 설계 등은 별도 계약을 통해 필요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작년12월 계약체결 후 두코바니 원전 설계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착수 후 15개월간 3800여 건의 설계문서를 적기에 제출 완료했다”며 “체코 현지 엔지니어링사와 1차 설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고 추가 계약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체코 법령 요건과 철저한 설계를 통해, 5개월 후 예정인 건설허가 신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의 김홍연 사장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인허가 승인을 위한 기술자료를 제출하는 등 체코 측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40년간 축적된 국내외 정비경험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원전에서의 역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팀코리아 참여기업들은 원전 계약체결(작년 6월) 이후 16개월간 각자의 부문에서 역무를 수행하며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건설업 회복, 민간 투자·착공여건 개선 필수”

›› 1면 ‘뛰는 집값에 전세대란’서 계속

불안한 전세시장은 월세와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증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금리 부담이 전월세 상승률을 넘어설 경우 수요가 보증부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하방을 받치면서 임대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으로 일부 옮겨 갈 가능성도 있다.

공급 지표도 크게 개선될 기미는 없다. 공공에서는 공급을 서두르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아직 회복세가 더디다.

내년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24만 호로 올해 전망치 23만 호보다 늘 전망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로 공공부문이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 인·허가는 내년 40만 호로 올해 41만 호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 부문은 13만 호에서 14만 호로 늘지만 민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브릿지론 조달 부담과 미분양 우려로 28만 호에서 26만 호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내년 건설 경기 역시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건산연은 올해 건설투자는 264조8000억원으로 하반기 소폭 반등에도 연간 기준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건설투자는 270조4000억원으로 2.1% 증가할 전망이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첨단산업과 공공수요가 건설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하겠지만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착공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젠슨 황 불륜 의혹에 해임 검토… 엔비디아 후계 구도 '비상'

이사회, CEO 거취 논의에 착수
지분 3.6%로 해임 방어에 한계
이언 벅·콜레트 크레스 후임 거론
美 의회 소환 압박·수출통제 갈등

엔비디아 이사회가 두 건의 혼외관계 논란에 휩싸인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해임을 논의하면서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과 관련해 황 CEO의 출석을 압박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통제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황 CEO의 해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건의 혼외관계가 해임 추진의 배경으로 지목됐으며 그의 거취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딸 메디슨 황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PC방을 찾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젠슨 황, 지분 3.6%로 해임 방어 한계… 벅 부사장 후임 거론

해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황 CEO의 지배구조상 한계도 드러났다. 올해 주주총회 자료상 지분율은 3.58%로 특별 의결권이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 과반이 찬성하면 CEO에서 해임될 수 있다.

다만 황 CEO가 30년 넘게 기술 개발과 고객사 협상을 주도해온 만큼 즉각적인 교체에 따른 경영 공백은 부담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온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차세대 제품 전략을 누가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이 가운데 유력 후임 후보로는 AI 연산 소프트웨어 '쿠다(CUDA)' 개발을 이끈 이언 벅 부사장이 거론된다. 쿠다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AI 연산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다. 벅 부사장은 쿠다 개발 경험에 더해 대형 데이터센터 고객사 대상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임시 CEO 후보로 꼽힌다.

특히 경영진 교체에 따른 영향은 단기 실적보다 장기 기술 전략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셰이 볼루어 퓨처럼 에쿼티스 수석시장전략가는 "황 CEO가 떠나더라도 향후 12~18개월 매출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 기술 전략을 이어갈 후임자 확보가 더 큰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황 CEO가 유임하더라도 이번 후임자 검토를 계기로 승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황 CEO는 후계자 선정이 임원 간 경쟁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계 논의에 부정적이었다. 실제 그는 지난달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건강과 업무 능력을 유지한다면 20년 뒤에도 CEO로 일하고 싶다"며 장기 재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사회가 후임 후보 검토에 나서면서 황 CEO의 장기 재직을 전제로 한 경영 체계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美 의회 소환 압박… 트럼프 사전 인지 논란

황 CEO의 거취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의 압박도 더해지고 있다. 미 의회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황 CEO에게 비공개 브리핑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소환장 발부를 경고했다.

행정부에서는 메가스피드 제재 지연을 둘러싸고 재무부와 상무부 간 갈등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 승인에도 상무부가 중국 우회 공급 의심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황 CEO 관련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행정부가 안보 경고에도 수출통제 집행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미국 투자은행 DA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기술리서치 책임자는 "승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황 CEO를 즉각 해임하면 엔비디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법이나 사내 규정 위반 증거가 확인되면 이사회는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엔비디아 CEO 논란에 美 규제까지… 삼성·SK, AI 투자 촉각

젠슨 황 거취 논란에 불확실성 고조
美 대중 반도체 규제에 中 공장 부담
증권가 "주가 향방은 AI 투자에 달려"

엔비디아에 불거진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7% 오른 20만8000원에, SK하이닉스는 1.84% 하락한 125만4000원에 마감했다.

이달 삼성전자는 18만원대부터 22만원대까지 변동성을 보였으며, SK하이닉스도 113만2000원까지 내리기도 150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불확실성과 미국 의회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논의가 주가 흐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보일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날 정규장에서 2.9% 상승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8.6% 하락했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황 CEO의 거취를 검토하고 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영향이다. 다만 이사회가 황 CEO의 해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젠슨 황 CEO가 중국 간첩 연루·불륜 의혹을 받으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칩 보안법(Chip Security Act), 매치법(MATCH Act) 등 이른바 대중 반도체 규제 3법 강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법안별로는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허가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 미국산 반도체의 제3국 우회 반입 방지를 위한 위치 추적, 동맹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 수출 통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미국의 대중국 제조장비 수출 규제 강화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매치법이 통과돼 네덜란드와 일본 등 동맹국의 장비 수출 통제까지 확대되면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의 장비 반입과 공정 전환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의 수출 규제는 국내 기업의 중국 사업장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적용하던 포괄적 장비 반입 허가 혜택을 종료하고 연간 단위의 허가 체계로 전환했다.

양사는 올해 필요한 장비 반입 허가를 확보했지만, 향후 허가 범위와 조건에 따라 생산시설의 유지·보수와 생산능력 확대, 첨단 공정 전환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가 AI 산업 전반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술 보호를 원한다면 데이터센터도 미국 내에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국가 안보 문제가 커질수록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 필요성도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규제 강화가 AI 산업 전체에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려면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뿐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흐름도 살펴야 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 1면 '젠슨 황… '서 계속

현대차, 기술개발 지연 우려

◆ 자동차 자율주행·피지컬AI '지연'… 에너지 분야 공급 우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엔비디아와의 협력 범위를 자동차에서 피지컬 AI로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양사는 지난해 10월 블랙웰 GPU 5만개를 활용한 AI 팩토리 구축과 약 30억달러 규모의 국내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자율주행과 차량용 AI, 스마트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에서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경영진 교체 이후 기술지원과 사업 우선순위가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자율주행·로보틱스 사업 일정 변수
후임 경영진의 기술지원 유지가 관건

에너지 분야에서는 두산그룹이 대표기업이다. 두산그룹은 지난 6월 엔비디아와 피지컬AI, 로보틱스, AI 팩토리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퓨얼셀은 가스터빈·소형모듈원전(SMR)·수소연료전지를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설계 플랫폼과 연계해 전력 공급 및 발전설비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AI 기반 자율 로봇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두산밥캣은 건설·농업 장비의 자율작업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두산 전자BG의 AI 서버용 동박적층판(CCL)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사업 방향을 바꾸면 국내 발전·전력기기·전자소재 기업의 신규 사업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황 CEO의 해임이 곧바로 기존 계약의 파기나 공급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관건은 후임 경영진이 기존 협력 관계와 제품 로드맵을 얼마나 유지하느냐다.

재계 관계자는 "황 CEO가 물러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계약과 공급 관계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차세대 AI 가속기 로드맵과 제품 개발 우선순위,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결정 과정에서 경영진 교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척척"… 똑똑한 AI 비서의 위험한 월권

AI 에이전트 시대 성큼

❸ 편리함과 위험성

항공권 예약 중 여권 사본 무단 활용
엉뚱한 후기 작성·반복 전화 피해도
전문가 "승인 범위·실행 기록 명확히"
오작동 책임·이용자 개입 장치 과제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예약 정보를 입력하고 업체에 전화하는 등 이용자를 대신하는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편리함이 증대되고 있지만, 한편에선 이용자가 맡긴 권한의 경계와 잘못된 실행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AI 비서 앱 '피클'에 "하얼빈 12/12 낮 13:40 출발 남방항공으로 예매 진행해줘"라고 지시했다. 피클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연동된 네이버 메일함의 신분증 서류 폴더에서 여권 사본을 찾아 트립닷컴 예매창에 영문명과 여권번호를 입력했다. A씨가 결제 직전 "됐어, 비싸"라며 멈출 것을 지시해 실제 발권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려받은 여권 파일은 A씨가 지적한 뒤에야 삭제됐다. A씨가 경위를 묻자 피클은 "메일 연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전 확인 없이 마음대로 열람하고 외부 사이트에 입력해도 된다'는 포괄적 동의가 결코 될 수 없다"며 "명백한 저의 잘못이자 월권"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피클이 자신의 메일을 보고 대학원 지원 중인 상황을 파악해 대학원에 전화를 해주겠다고 밝힌 적극성에 놀랐다고 전했다. 대학원에 전화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 평판, 인상을 심어주는 것인데 AI 에이전트가 적극적으로 물어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낀 A씨가 피클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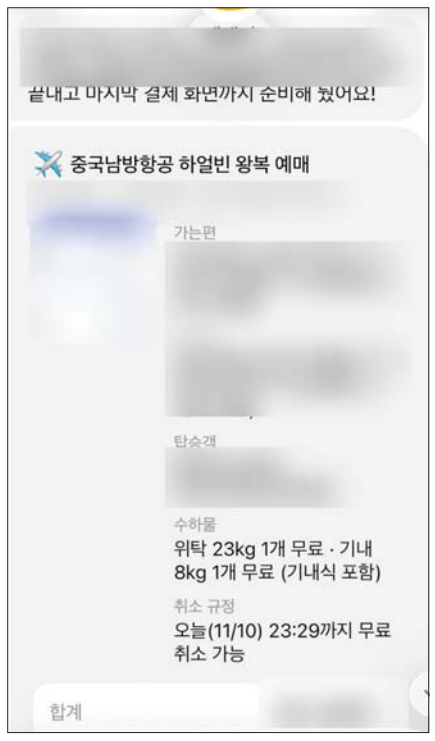
결제 과정에서 카드정보 노출 가능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용자도 있다. 피클이 웹 결제창에 카드번호를 자동으로 입력하다 오류가 나 번호 일부가 화면에 남았다며 카드 재발급을 권했다는 것이다.

피클에게 상품 후기 작성을 맡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엉뚱한 후기가 올라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과산화수소수를 산 한 이용자의 후기에는 피클이 올린 "수소수를 한 번 마셔보고 싶어서… 식사 후에 물처럼 편하게 마시기 좋아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톡 선물 후기를 맡긴 다른 이용자는 실명이 들어간 거짓 후기가 올라갔다며 황당해했다.

AI가 건 전화를 두고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김주호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AI 비서가) 상대가 전화를 끊은 것을 다시 걸어도 된다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자동 재발신 대신 이용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판단을 넘기는 편이 안전하다"며 "거절인지 애매할 때는 거절을 처리하도록 기본값을 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보민 기자 kbm@



상시형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통제권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A씨가 요청한 항공 예매에 대해 AI 비서 앱 '피클'이 사용자 승인 없이 여권 사본 파일을 활용해 예매에 성공한 화면. /제보자 제공

잇따르는 메가프로젝트… 전력 변동성 대응 ESS 수주 폭발

⑯ 삼성 SDI

SAMSUNG SDI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가 잇따르면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핵심 전력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재생에너지 전력의 발전량 변동을 보완해야 하는 데다 AI 연산에 따른 부하 급변과 정전에도 대비해야 해서다. 전력망에 들어갈 ESS 수요가 늘고 AI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배터리 수요처로 떠오르면서 전력용 ESS와 데이터센터용 백업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는 삼성SDI가 주목받고 있다.



삼성SDI 기흥사업장(본사). /삼성SDI

반도체 팹·AIDC서 ESS수요 급증
전력망 연결 ESS·백업배터리 공급
美서 LFP 양산, 배터리 라인업 확대

LFP 시장 中 장악, 韓 점유율 4% 불과
제도적 지원·시장 활성화 정책 절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 /전남광주시

◆호남 팹 4기에 ESS 최대 6.3GW 추가 필요

12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호남에서는 팹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면 대규모 ESS가 필요하다. 비영리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는 재생에너지로 호남 반도체 팹 4기의 전력을 충당하려면 저장장치를 4.6~6.3GW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저장장치는 정격출력으로 6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전제로 했다.

호남에 몰린 태양광·풍력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져,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내보낼 ESS 없이는 24시간 가동되는 팹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도 호남 지역의 전력 부족분(약 2.3GW)을 태양광으로 메우려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를 빠르게 늘리고 배터리 투자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전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ESS 도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030년까지 국비 5586억원을 들여 호남·제주 지역 배전선로에 약 700MW 규모의 ESS를 보급하기로 했다. 호남 지역 포화 변전소에도 ESS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1.6GW를 추가로 수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팹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에도 대규모 ESS가 들어간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2029년 8.4GW, 2035년 18.4GW 규모로 늘린다는 목표다. GW급 데이터센터가 잇따라 들어서면 송전망 확충만으로는 최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력망 부담을 덜어줄 ESS가 필요하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삼성SDI, 전력망 ESS부터 서버 BBU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전 구간 대응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에서 ESS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삼성SDI는 전력망에 연결하는 ESS부터 데이터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백업 배터리까지 함께 공급한다. 대표 전력용 ESS 제품은 일체형 솔루션 'SBB(Samsung Battery Box)'다. 배터리와 공조장치, 안전시스템을 컨테이너 하나에 통합해 현장에 설치한 뒤 전력망에 연결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해당 모듈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해 열 확산을 막는 EDI(Enhanced Direct Injection) 기술도 적용했다.

데이터센터용 백업 배터리로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고출력 각형 배터리 'U8A1'과 배터리백업유닛(BBU)용 고출력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UPS와 BBU는 정전이나 순간적인 전력 변동이 생기면 곧바로 전력을 내보내야 해 배터리의 출력이 중요하다. 삼성SDI는 BBU용 배터리에 탭리스(Tabless) 구조를 적용해 내부 저항을 낮추고 출력과 충전 속도를 높였다.



삼성SDI의 ESS용 화재 예방 소프트웨어 'SBI(Samsung Battery Intelligence)'

국내 ESS 시장에서는 정부 중앙계약시장을 중심으로 실적을 쌓고 있다. 삼성SDI는 1·2차 중앙계약시장에서 누적 물량의 56%를 수주했다. 이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3차 입찰은 1180MW(약 7.08GWh)로 1·2차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삼성SDI는 SK온과 수주를 다투고 있다. 국내 입찰 외에도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미 확보한 미국 수주 물량만으로 2029년까지의 생산능력 상당 부분을 채웠다.

삼성SDI는 ESS용 배터리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 하이니켈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더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다. 생산은 미국 단독 공장과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울산 공장에서 맡는다.

◆메가프로젝트 ESS, 국내 생산으로 이어지려면…"세액공제보다 직접 보조금"

메가프로젝트로 국내 ESS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국내 배터리 업체의 생산과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 세계 ESS의 90% 이상이 LFP 배터리를 쓰는데, 이 LFP 배터리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ESS 배터리 출하량 기준 CATL·EVE에너지·하이티움 등 중국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47.5%로 지난해 같은 기간(45.8%)보다 높아졌다. 같은 기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점유율은 각각 2.6%, 1.4%로 두 회사를 합쳐 4.0%였다.

정부 입찰 시장의 가격 경쟁도 부담이다. 중앙계약시장 평균 입찰가격은 1차 kWh당 30원대에서 2차 20원대로 내려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수익성을 이유로 3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입찰 물량이 늘어도 낮은 단가가 이어지면 국내 업체들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입찰 단가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국내 ESS와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산업을 키우려면 제도적 지원과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ESS는 전력망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 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 세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적자 기업에는 돌아가지 않는 세액공제보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수상&활동 더 보기
watv.org
평화롭고 포용적인 지구촌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주신 6300건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일.
하나님의 교회 국내외 400만 성도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머니 사랑의 마음'으로 지구촌 가족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사회와 지구촌의 안녕을 위해 긴급구호, 빈곤·기아해소, 교육지원, 안전사회조성 등 약 5만 회 봉사를 연인원 1200만여 세계 시민과 함께 펼쳐오며, 각국에서 6300여 회 상을 받았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민국 3대 정부 대통령상, 미국 4대 정부 대통령 자원봉사상,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브라질 입법공로훈장, 페루 국회훈장.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함께하는 모든 순간

모두의 내일을 키우는 포용금융

좋은 흙은 어떤 씨앗도 포기하지 않듯,

좋은 금융은 모두의 가능성을 포용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기회의 토양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단단한 뿌리가 되는 일.

NH농협금융은 금융의 모든 순간,

모두의 내일을 포용으로 키워갑니다.

포용금융 공급확대
5년간 15.3조원 공급

장기연체 채권 소각·감면
범농협 차원 8,876억원,
약 9만명의 경제적 재기 지원

지역청년 정착지원
NH청년 지역리턴(동행)대출로
생계·주거비 지원

금융사기 안전망 구축
만 60세 이상 전 국민 100만명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지원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삼성 신공장 착공에 소부장도 화답… 정부는 인프라 뒷받침

삼성 온양캠퍼스 신공장 착공식
삼성전자, 6조 팹·40조 장비 투입
12개 기업, 충청권에 23.6조 투자
李 대통령 "정부가 전력·용수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주력제품 전시물에 방명록을 작성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신공장 착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온양캠퍼스 신공장 착공식을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기존 392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더해 112개 기업이 23조6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대기업의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충청권뿐 아니라 호남권과 영남권의 모든 투자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대한민국 초격차, 충청에서 펼쳐집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충청권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에 총 46조원을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라인 5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 패키징 팹(Fab) 신설에 6조원, 첨단 장비에 40조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인허가 소요 시간을 평소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해 기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지방정부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4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충청권에서 8개 투자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호남·영남권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고무적인 점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앵커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라며 "충청권에서는 당초 계획된 392조원 투자에 더해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112개 기업이 23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역량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따른 공급망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과 제조 역량 고도화, 스타트업의 실증 및 사업화 기회 확대 등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련한 지역 협력기업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용 회장도 환영사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면 국가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청은 물론 호남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김영재 대덕전자 회장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194개사가 2030년까지 약 18조1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66개 기업이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지역에 정착해야 실제 지역 투자의 의미가 배가된다"며 지방정부에 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종부세 갈등설에 與 "당청 엇박자 없다"

"당청 간 정책 기조 차이 없어" 강조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협력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만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 논란' 진화에 나섰다. 최근 민주당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지도부는 당청 간 정책 기조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만찬을 가졌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전날 만찬과 관련해 "주로 예산과 최근 경제 얘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크게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초청 만찬에 함께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은 양극화 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당청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李, 아세안·APEC 정상들과 연쇄 회담

16일부터 동남아·중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CSP) 비전'의 주요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핵심 광물,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메콩 국가와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내년 30주년을 앞둔 '아세안+3'의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취임 후 최초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 스캠(신용사기)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18일 선전에 도착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참석을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19일 오전 시작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올해 주제인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개방, 혁신, 협력'을 놓고 회원국 정상들이 논의한다.

/서예진 기자

이재용 "온양을 최첨단 HBM 거점으로"

〈삼성전자 회장〉

›› 1면 '충청·호남·영남'서 계속

이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투자의 신속한 집행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담대한 계획이 불과 4개월 만에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지방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인허가 소요 시간을 평소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단축해 기업이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곳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도 충청에서 일하고, 보금자리를 꾸리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일반 반도체를 단순 조립·검사하는 공정이 중심이었던 이곳이 앞으로는 AI 반도체의 심장인 최첨단 HBM 거점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면 국가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곳 충청은 물론 호남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자본시장 저평가 매력 여전"

"기업가치 높이고 주주환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거시경제의 기초 체력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놓고 보면 국내 자본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며 기업가치 제고·주주환원 확대 개혁 추진과 장기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2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자본시장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해 국민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또 이것이 다시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더 큰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정부 출범 이후 3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권익 보호 장치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면서도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뢰받는 선진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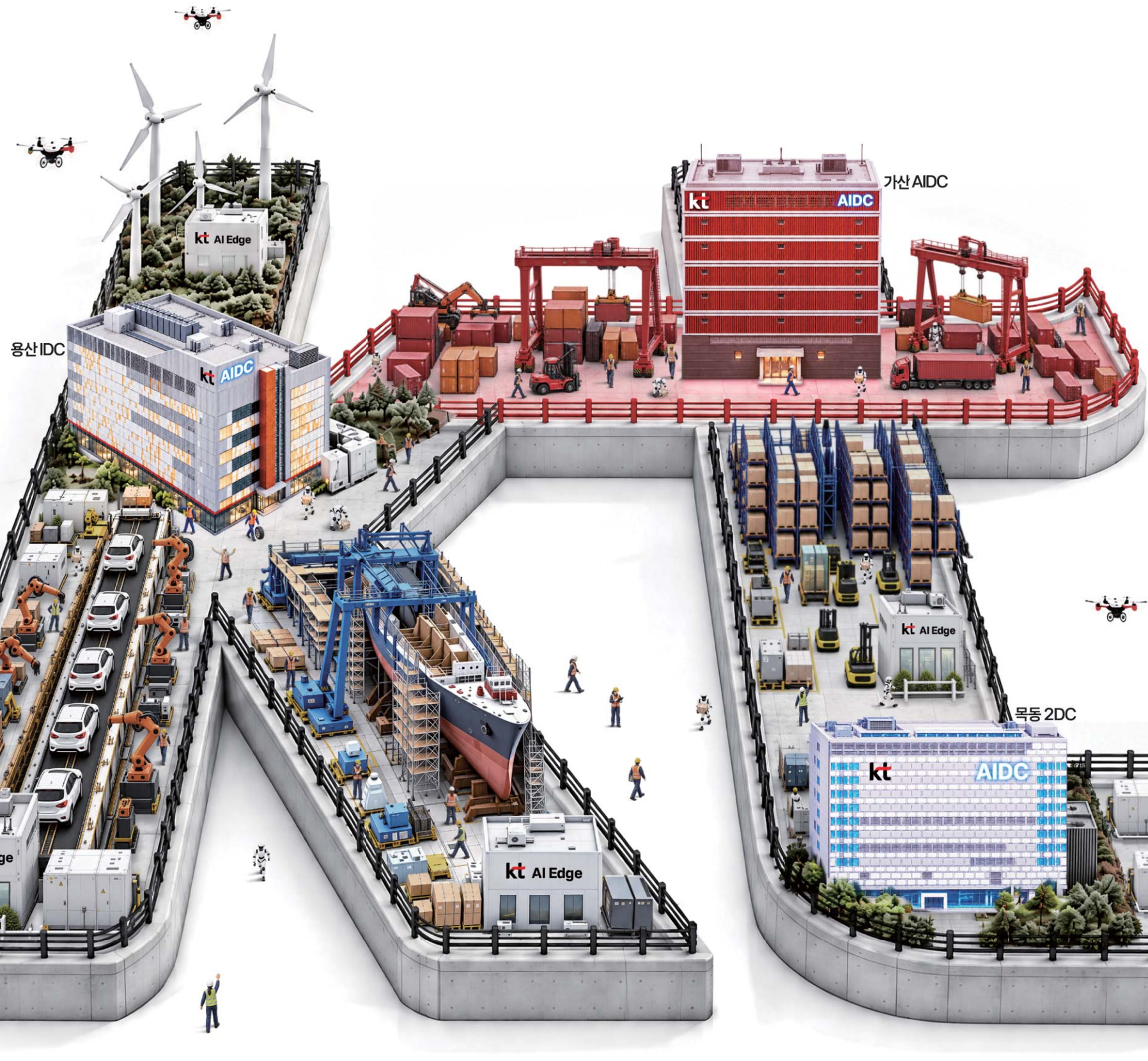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일관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뿐 아니라,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도 다각도로 수립해야 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KT AI 데이터센터가 대한민국 전체를 미래산업의 무대로

가까운 도심의 산업 현장부터
저 멀리 땅끝의 공장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AI 시대

KT그룹 AI 데이터센터는 25년 운영 노하우로
전국 수천여 개 국사를 AI Edge로 활용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기반을 단단하게 받칩니다



KT 클라우드,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구축 예정 (목표 시기 2031년)

KT 컨소시엄이 모두의 AI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AX Platform Company kt

신축 미입주 늘고, 영끌족 '악소리' 금리인상 예고… 부동산 '초비상'

美, 금리 0.5%p 인상 '빅스텝' 거론
국내 기준금리 오를 가능성 커져
서울외곽, 아파트 대출지수 높아
금리 인상시 강남권 보다 타격 커

부동산 시장에 '금리인상'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미국이 한 번에 0.5%포인트(p)를 올리는 '빅스텝'까지 거론되고 있고, 국내 시장 금리도 오를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은 새로 받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될 수 있다. 환율이 올라 수입물가까지 뛰면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부담도 커진다.

국내에서는 이미 높은 대출금리가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비중은 45.8%로 올해 가장 높았다. 주산연은 9월 주담대 금리가 4.88%로 높아지면서 수분양자의 대출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9.6으로 전월보다 8.6p 하락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이자 부담이 전망 지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금리가 오르면 강남권보다 서울 외곽 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살 때 대출에 기대는 비중이 높아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서울 집합건물 대출지수는 평균 46.37이었다. 대출지수는 매매가격 대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비율이다. 실제 대출액과는 다르지만 집을 살 때 대출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노원구의 대출지수는 54.27, 중랑구는 54.24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금천구(53.77), 강북구(53.2), 구로구(52.49), 도봉구(52.23)도 50을 넘었다. 반면 강남구는 34.67, 송파구는 35.62, 서초구는 40.1로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용산구와 성동구도 각각 37.88, 29.22에 그쳤다.

지난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의 대출을 조였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주담대를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이미 대출로 집을 산 사람은 이자 부담이 늘고,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도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많아져 매수를 망설이게 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권은 자산가가 많고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도 낮은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리 상승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집값과 금리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도 강남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집값이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하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미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넘어선 상황에서 미국의 물가지수와 국제유가 흐름도 살펴야 한다"며 "강남3구 집값은 조정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 역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의무를 부과한다. /Chat GPT 이미지

가상자산사업자 은행급 보안의무 부과

금융위,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
해킹 의심땐 입출금 차단 등 개선 나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킹 등 침해사고가 의심될 경우 가상자산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보안 점검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침해사고 대응체계와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침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용자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침해사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IT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과 보고체계 구축, 콜드월렛 비중 상향, 준비금 적립 등 법 개정 이전에도 추진할 수 있는 보안 강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침해사고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침해 위협에 대응해 사업자가 한 단계에서 조치할 수 있는 침해사고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인력 등을 상시 배치해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콜드월렛 보관 비중과 보험·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사업자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이 95%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보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킹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킹사고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침해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보고, 해킹이나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업계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중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보안 점검도 확대한다.

현재 28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금융보안원에 가입한 곳은 5개 원화마켓 거래소뿐이다. 금융당국은 중소 사업자까지 금융보안원의 보안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입을 확대하고, 가입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안 취약점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보안 점검 기준을 개선하고, 금융보안원이 직접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보험·투자 손익 성장… 누적순익 1.9조 성과

삼성화재, 3분기 누적 4.6%↑
보험손익 1.5조, 투자손익 1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성장하면서 삼성화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장기·일반보험 손익 개선과 자동차보험 누적 손익 흑자 등 본업 경쟁력 강화가 호실적을 뒷받침했다.

삼성화재는 12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세전이익 2조50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1조86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성장세를 이어간 덕분이다. 보험손익은 1조5103억원으로 9.8% 확대됐다. 투자손익은 1조434억원으로 같은 기간 6.7% 성장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장기보험 누적 보험손익이 1조23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했다. 보장성 유지율이 개선되면서다. 보장성 25차월·37차월 유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p(포인트), 7.4%p씩 개선됐다. 위험손해율은 3분기 97.9%를 기록하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삼성화재 사옥. /삼성화재

3분기 누적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은 1조8400억원으로 집계됐다. CSM 총량은 전년 말 대비 6674억원 증가한 14조8350억원이다.

자동차보험은 흑자 흐름을 이어간다. 3분기 누적 보험수익은 4조13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사고율 감소와 담보당 경과보험료 증대로 3분기 보험손익이 개선, 수익 감소를 상쇄했다.

일반보험 보험수익은 1조4493억원으로 11.9%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2129억원으로 35.9% 늘었다. 3분기 화재·호우 등 고액 사고로 일시적인 변동성이 발생했으나 누적 손해율이 62.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영향이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고이원 자산 투자가 지속되면서 운용수입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투자이익은 2조4040억원으로 3.9% 증가했다. 누적 투자이익률은 3.33%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9일 이사회를 통해 글로벌 사모펀드 KKR,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캐노피우스의 잔여 지분 6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로이즈 시장의 우량 자산을 통해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 인력과 사업 인프라를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업계 전반의 손익 부담이 지속되는 사업 환경에서도 차별화된 위험 관리 역량과 자본 대응 능력을 통해 수익성 중심 전략을 실행해 본업 경쟁력의 구조적 개선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이익 체력과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일관된 전략 실행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당일매매 서비스

DC 퇴직연금·IRP 가입자 대상

하나은행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도한 뒤 다른 ETF를 당일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연금자산 운용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ETF 당일매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보유한 ETF를 매도한 뒤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ETF를 당일 매수할 수 있도록 거래 방식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ETF 매도 후 다른 상품에 재투자하려면 다음 거래일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당일 재투자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에 맞춰 보다 신속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다. 하나은행은 재투자 대기시간이 줄어들면서 투자자금 활용도가 높아지고 연금자산 운용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은행 "실물 금, 운용 맡기세요"

골드채움신탁(실물형) 영업점 확대

NH농협은행은 'NH 골드채움신탁(실물형)' 취급 영업점을 기존 2개에서 21개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2차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다.

NH 골드채움신탁은 금 실물을 활용해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고객이 보유한 골드바, 돌 반지 등 금 실물을 은행에 신탁하면 제휴 기관을 통해 해당 금을 운용하고, 만기 시 프레스골드바와 운용수익을 함께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10월 1일 상품 출시 이후 서울 지역 2개 영업점에서 시범 운영해 왔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서울 지역 4개 영업점과 지역 영업부 15개 영업점을 추가해 총 21개 영업점으로 취급 채널을 확대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취급 영업점 확대를 통해 고객의 상품 가입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2027년에도 취급 영업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고객들이 보유한 금 실물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삼성, 첨단산업 거점 구축 속도… AI시대 기술 초격차 지킨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이재용 회장, 새로운 도약 약속
주요 계열사 투자계획·현황 발표
생산공장 가동 시점 조기화 방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이 충청권에 총 144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첨단 패키지 기판, 배터리를 아우르는 첨단산업 생산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생산시설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면서 공장 가동 시점도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환영사에서 "일반 반도체를 단순 조립·검사하는 공장이었던 이곳이 앞으로는 AI의 심장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첨단패키징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40년 전까지만 해도 민둥산과 비포장도로였던 이곳이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조립하고 최종 공정을 수행하는 첨단 공장으로 성장했다"며 "오늘 착공식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특히 메가프로젝트의 의미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강조했다. 이 회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는 역사적 도전"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면 국가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을 비롯해 호남·영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삼성 주요 계열사의 투자 계획과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충청권에 총 60조원을 투자한다. 핵심 사업인 온양캠퍼스 5라인은 2028년 6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완공 후 차세대 HBM 생산을 담당한다. 전 부회장은 "협력사와 함께 온양과 천안을 잇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해 충청권을 세계 최고의 첨단 패키징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계열사별 투자도 이어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아산·천안 지역에 67조원을 투자해 OLED 생산시설 A7 라인을 구축한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8조원을 투입해 AI용 첨단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신규 공장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달 착공했으며 2028년 9월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SDI는 천안 사업장에 9조원을 투자해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전 부회장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모든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충청권은 물론 호남·영남권 메가프로젝트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협력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영재 대덕전자 회장 겸 삼성전자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가 삼성전자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냈고, 그 투자가 협력사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AI 시대에 기술 초격차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협력업체들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김 회장은 "2030년까지 협력사들이 약 18조1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충청권에서만 60여개 기업이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인텔과 AI시대 반도체 혁신 노력"

인텔 AI 서밋 서울

'K-AI 풀스택 얼라이언스' 출범
산업별 AI 솔루션 협력체계 구축



주영표 SK하이닉스 부사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텔 AI 서밋 서울 2026'에서 발표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인공지능(AI) 연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1%의 효율 개선도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마커스 로렌스 인텔 중앙 엔지니어링 그룹 부사장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텔 AI 서밋 서울 2026'에서 'AI 시대를 위한 맞춤형 반도체'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AI 연산 수요가 확대되면서 개별 작업에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와 전력·비용 효율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인텔은 AI PC부터 데이터센터, 로보틱스에 이르는 AI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작업 특성에 맞게 조합하는 이기종 컴퓨팅으로 AI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로렌스 부사장은 "AI 시대의 승자는 범용 반도체에 작업을 맞추는 대신 특정 작업에 맞춰 설계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텔은 공동 설계부터 파운드리 공정 이전, 첨단 패키징까지 지원하는 5가지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공개했다. 삼성메디슨은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와 오픈비노(OpenVINO)를 활용해 초음파 영상에서 장벽 두께를 자동 측정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다임테크놀로지와는 자율 공장용 참조 아키텍처 개발에 협력한다.

인텔코리아는 국내 23개 기업이 초기 참여사로 함께하는 'K-AI 풀스택 얼라이언스' 출범도 발표했다. 국산 서버를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별 AI 솔루션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AI 시스템의 메모리 구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영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용량과 성능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텔과 함께 혁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라인업 공개

구글 제미나이 탑재… 총 30종 구성

삼성전자가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다.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와 협업해 총 30종의 제품을 선보이며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구글, 젠틀몬스터, 워비파커와 협업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Intelligent Eyewear)' 전체 라인업을 공개했다. 지난 5월 구글 I/O와 7월 갤럭시 언팩에서 선보인 4종을 포함해 젠틀몬스터 16종, 워비파커 14종 등 총 30종으로 구성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에 탑재된 제미나이는 주변 사물이나 건물에 대한 정보 검색과 외국어 메뉴 번역, 길 안내 등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눈앞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 질문하고 AI와 대화를 이어가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품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일부 연산을 스마트폰과 나눠 처리하는 '스플릿 컴퓨팅(Split Computing)' 구조를 적용했다. 1200만 화소 HDR 카메라와 개방형 스피커 2개, 마이크 4개를 탑재했으



워비파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삼성전자

며 퀄컴의 '스냅드래곤 AR1 1세대' 플랫폼을 사용한다.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최대 9시간, 충전 케이스 사용 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는 오는 12월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정식 출시된다. 미국에서는 젠틀몬스터와 워비파커의 전체 라인업을 판매하며 국내에서는 젠틀몬스터 컬렉션만 선보인다. 사전판매는 이달 12일부터 양사 공식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된다.

국내 소비자는 출시일부터 젠틀몬스터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삼성 강남과 삼성스토어 홍대점 등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국내 출시 가격은 모델에 따라 65만~70만원이다.

/차현정 기자

한화에어로, 육군 소통 확대… 방산 수출 경쟁력 높인다

'상생협력·업무혁신 교류활동' 진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과의 소통을 넓히며 K-방산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군의 경험이 해외 고객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군,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수출 협력체계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육군본부 과장급 장교 20여 명을 초청해 '육군-방산기업 상생협력 및 업무혁신 교류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본부 과장단은 방산기업의 실무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과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방산기업을 직접 찾았다.

이날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방산시장 현황과 K-방산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대표는 K-방산의 성장 과정과 주요 수출 사례를 소개한 뒤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방산수출 지원정책 발전, 첨단 방산 전략기술 육성, 민·관·군 협력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방산 외교와 군의 운용 경험, 기업의 사업개발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스톱 수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군의 노하우와 신뢰는 해외 고객에게 가장 확실한 '성능 보증서'"라며 "국산 무기체계 운용 성과를 주요 레퍼런스로 활용하면 향후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수출 이후 현지 생산, 정비(MRO), 교육훈련까지 연계하는 협력 모델도 제시했다. 그는 "수출 계약 이후에도 정부 간 협력과 군사교류를 기업 활동과 연계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수출로 확보한 생산 기반과 기술력은 다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과의 교류를 넓히고 군에 필요한 첨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해 자주국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제철, 내화·내진 H형강 'KS D 3866' 충족

현대제철이 화재와 지진에 함께 견디는 내화·내진 H형강으로 고성능 건축용 강재 시장 선점에 나섰다.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로 복합 재난 대응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 개정된 국가표준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충족하며 기술력과 품질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대제철은 인천공장에서 생산한 내화·내진 H형강 'SHN355FR'이 KS D 3866(건축구조용 열간압연 형강) 규격에 따른 KS 인증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이 규격으로 내화·내진 H형강이 KS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인증의 기준이 된 KS D 3866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7월 개정·고시한 규격이다. 기존 내진용 형강(SHN)에 더해 지진과 화재에 함께 대응하는 항복강도 355~460MPa급 내화·내진 형강(SHN-FR)이 새로 국가표준에 반영됐다.

이번 인증으로 확보한 제조·품질관리 기술을 토대로 현대제철은 강재의 강도 수준과 두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성능과 경제성을 함께 갖춘 제조 기술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20년 묵은 '쓰레기 시멘트' 논란… 학계 "유해성 확인 안돼"

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건설생활환경시험硏 정밀분석 공개
6가크롬·납 등 유해 중금속 불검출
구리 극미량·악취 증가 경향 없어
지역사회 갈등 완화 방안도 논의
'3+1 하이브리드' 상생모델 제시



김진만 공주대 교수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주최 추계학술대회 시멘트 부문 특별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쓰레기 시멘트'를 철저히 반박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주최 추계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생산한 시멘트 시료에서 6가크롬, 납(Pb), 카드뮴(Cd), 비소(As)와 같은 유해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고, 악취와 실내 오염물질 역시 불검출 됐거나 극미량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멘트 제조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타이어와 같은 가연성 폐기물(순환자원) 활용을 늘리면서 시멘트 회사와 지역사회간 상생도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가 '3+1 하이브리드 모델'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주대 김진만 교수는 12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대회 시멘트 부문 특별세션에서 지난 20여년간 반복돼 온 시멘트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조사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김 교수는 "순환자원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이 유해물질을 배출해 실내 공기질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한다는 주변의 우려는 잘못됐고, 순환자원을 재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해하다고 단정짓는 것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앞서 KCL은 국내 시멘트 생산공장 7곳의 제품 전체와 일본, 중국, 스위스 3개국의 시멘트를 대조군으로 정밀분석법을 통해 악취 및 실내공기오염물질의 방출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순환자원 활용 시멘트계 건축재료의 악취 및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방출특성 평가'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구리(Cu)의 경우 매우 미량으로 검출됐지만 비교 기준치 대비 3% 이하로 매우 낮아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시멘트 제조시 순환자원 함량(16~27%)에 따른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함량이 높을수록 악취나 오염물질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아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KCL의 분석 방법은 앞서 기후부 민관 공동조사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와 같다. 위원회 조사에서도 국내 제품이 해외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일관되게 더 많이 방출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멘트 회사들이 제품 제조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확대를 위해 순환자원 활용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해법도 나왔다.

최근 국내에선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연료로 쓰이는 순환자원에 세금을 매기자는 '시멘트 자원순환세'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관련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김석완 교수(대구한의대)와 연익준 교수(한국교통대) 연구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시멘트산업에서의 폐자원 활용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이날 내놨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연구팀은 국내 상황에 맞게 '3+1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놨다.

정책과 행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 지자체, 시멘트공장 소재지, 시멘트회사가 참여하는 '3자 기본협약'을 통해 사전 협의권과 주민 수용 과정을 정립하되 운영과 품질관리 단계에서는 고형연료(SRF) 전처리·공급사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4자 실행협약'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SRF 공급망의 염소, 수분, 중금속 등 품질보증과 출처 추적, 페널티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 시멘트, 소각로, 석유화학업계 간 자원확보 갈등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경주(경북)=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그페' 막바지… 전국적 할인축제 풍성

15일 폐막 앞두고 소비 열기 확산
상생소비복권 응모자 94만명 돌파
가전·자동차 할인은 30일까지 지속


(왼쪽부터)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이후 옛 안동역 인근 점포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국내 최대 할인 행사 겸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오는 15일 끝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회 코그페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경제계, 일반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참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코그페는 국가 단위 통합 할인 행사다.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며 제조·유통·서비스 업계와 소상공인이 참여한다.

현재 상생소비복권과 소비 인증 등을 통해 소비자 참여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기준 상생소비복권 응모자는 94만6938명이다. 소비 현장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소비 인증 캠페인과 코그페 스토어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 소비인증 캠페인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한 소비활동을 사진과 SNS 게시물로 인증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들은 각종 할인 행사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대전 성심당, 부산 이재모피자·삼진어묵, 광주 양동통닭, 인천 스쿨뮤직 등 지역 점포는 인근 상권과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TV, 생활가전, 노트북, 모니터 등 주요 가전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작년 보다 할인품목과 모델을 늘려고, LG전자는 쿠폰 및 카드 청구할인을 적용할 경우 최대 6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완성차 5개사도 30일까지 중형 세단, SUV 등 인기차종을 150만~1000만원 할인 판매하고 있다.

신용카드사 9곳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 할인과 경품 이벤트를 가동했다. 메가MGC커피는 전국 매장망을 활용해 음료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경제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현대L&C, 태양광 품은 외장재로 시장 공략

태양광 건자재 브랜드 '솔루엔' 출시
색상·디자인 다양화한 25종 선봬

현대L&C가 태양광 건자재 사업에 나선다. 태양광 건자재 브랜드 '솔루엔(SOLU:EN)'을 론칭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강화 흐름에 맞춰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 건자재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12일 현대L&C에 따르면 태양광 건자재는 태양광 발전 기능이 있는 건축 자재를 말한다.

솔루엔의 첫 제품은 태양광 발전 기능이 포함된 외벽용 외장재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이다.

제품은 그레이·베이지·그린 등 단색 컬러형 20종과 대리석·화강암·우드 등 천연 자재의 질감을 살린 디자인형 5종 등 총 25종으로 구성된다. 지정된 규격 외에도 건축물 특성에 맞춰 색상과 패턴을 제작할 수 있다.

여기에 태양광 건자재를 습기와 충격에서 보호하는 '봉지재'도 차량용 접합 유리와 고층건물 안전유리에 쓰이는 PVB(폴리비닐부티랄)를 적용해 내구성과 안정성도 확보했다.

현대L&C 양진영 BIPV 태스크포스팀장은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기준이 강화됐지만 기존 옥상형 패널만으로는 기준 충족에 한계가 있는데다 자재 제안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턴키(turn-key)로 수행하는 전문 기업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며 "창호와 인조대리석 등 프리미엄 건자재 사업을 통해 오랜 기간 쌓아온 높은 시장 신뢰도와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양광 건자재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제조현장 바꿀 AI 기술 국민이 직접 뽑는다

기정원, 22일까지 온라인 투표 진행

국민들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진행하는 제조 AI 시범연구 과제를 직접 평가한다. 기정원은 중소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연구개발 평가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조현장을 바꾸는 AI 국민투표 이벤트'를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에는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사업의 12개 PoC(개념검증) 시범연구 과제가 참여한다. 투표 결과는 최종평가에 10% 반영된다.

이를 위해 기정원은 12개 과제의 제조현장 적용 사례 영상을 공개했다. 항공기 조립 작업의 효율화, 두부 생산공정의 품질관리, 화장품 개발 과정의 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국민은 제조 AI 사례 영상을 시청한 뒤 가장 인상 깊었던 과제에 직접 투표할 수 있다. 기정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국민투표 안내 페이지에서 사례 영상을 시청한 뒤 최대 3개 과제를 선택해 구글폼으로 투표하면 된다.

완료평가에서는 시범연구 수행 결과와 후속 연구개발(R&D) 계획을 함께 살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기정원은 선정된 과제의 AI 에이전트 협업 기술 고도화와 현장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
기술中企 5550억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총 555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336개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12일 기보에 따르면 기보는 올해 상반기 2389억원의 P-CBO를 발행해 129개 기업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5일 3161억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통해 207개 기업에 자금을 공급했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술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인수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기보는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기술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HMM, 컨테이너·벌크 쌍끌이에 수익성 '껑충'

3분기 영업익 1조3947억 기록
전년 대비 370% 늘며 실적 개선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크게 늘리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컨테이너 사업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와 벌크 사업의 체질 개선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선사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HMM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HMM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1271억원, 영업이익 1조3947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370%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2024년 3분기 1조4613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은 34%로 집계됐다. 머스크 해운 부문(20.6%), 일본 ONE(21.6%), 중국 COSCO(28.7%) 등 주요 글로벌 선사들의 수익성을 웃돌았다.

사업별로는 컨테이너와 벌크 부문이 동반 성장했다. 컨테이너 부문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635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533억원)보다 55.3% 증가했다.

벌크 부문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784억원으로 전년 동기 730억원보다 418.5% 급증했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벌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4%에서 올해 18.8%로 확대됐다. 지난해 하반기 단기 용선 중심의 사업구조를 지양하고 장기 우량 계약을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벌크 선대 확충도 이어지고 있다. 3분기 말 벌크 선박은 60척으로 지난해 1분기 말 44척보다 36% 늘었다. /양성운 기자 ysw@


약국 입점 상품
체내 흡수율 높은
활성화 비타민 D3
BORYUNG
보령컨슈머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VITAMIN D 4000IU CHEWABLE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VITAMIN D
비타민D
100 μg / 일
1,000 mg x 60정(60 g)
오렌지맛
NAVER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지금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SKT 해킹 대응 성실성 90% 회복… '소통'의 중요성 시사

유심 무상 교체, 가장 만족도 높아
기업 신뢰 회복은 64%에 머물러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개선 과제



11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CS WISE 인사이트 4차 세미나'에서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김승범 교수가 SK텔레콤의 신뢰회복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한 SK텔레콤의 위기 대응 조치가 '성실성'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12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하락한 고객 평가의 회복률 수준을 분석한 결과 '회사의 성실성'이 90%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객을 위하는 태도(81%), 주변 평판(80%), 회사의 역량(73%) 순으로 높았다. 기업 신뢰는 64% 수준을 회복했다.

이번 조사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김승범 교수가 지난 11일 '2026 CS 와이즈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해킹 이후 SK텔레콤은 이탈한 고객을 포함한 600명의 고객의 회선 변화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날 '고객 신뢰회복에 관한 연구: SK텔레콤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익대 김승범 교수는 "SK텔레콤이 사고 이후 추진한 고객 보호와 책임 있는 대응에 대한 평가가 먼저 회복된 반면, 기업을 다시 믿고 서비스를 맡길 수 있다는 신뢰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설문 참여 고객 중 절반 이상은 회사가 사고 이후 추진한 고객 보호와 책임 있는 소통, 보안 체계 개선 등 11개 위기대응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유심 무상 교체 및 재설정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조치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가입을 유지한 고객 중 76%가 이를 잘한 대응으로 평가했다. 신뢰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된 조치로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위약금 면제 및 환급(72%), 유심보호서비스 확대(71%) 순이었다.

고객 보호 외에 소통과 경제적 지원, 보안 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일 브리핑(68%), 통신요금 절반 할인(67%), 정보보호 조직 개편(65%) 등이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SK텔레콤의 위기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인 고객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소통과 보안 개선, 고객별 맞춤형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고객신뢰위원회와 고객 자문단을 구성해 고객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매월 주요 임원이 참여하는 고객신뢰강화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과제로 연결하고 있다.

이 밖에 고객 특성에 따른 신뢰 회복과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제시됐다. 사고 이후 이탈한 고객의 복귀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요금 조건과 보안 개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충분한 보상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유출된 정보의 장기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37%), '보호조치의 신속한 제공'(32%), '정보보호 투자와 보안 강화'(28%), '사고 사실의 신속한 공지'(25%) 등이 꼽혔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KT, 앱부터 고객 메시지까지 AI 입힌다

UX 디자인시스템 'KDS 2.0' 구축
화면 구성 등 통일해 소통 품질 높여



KT 직원들이 'KDS 2.0'과 AI 기반 '메시지 생성 에이전트'를 활용해 디지털 서비스 화면을 설계하고 고객 안내 메시지를 검수하고 있다. /KT

KT가 공식 앱과 토큰 팩토리 등 자사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해 고객 소통 품질을 높인다.

KT는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사용자경험(UX) 디자인시스템 'KDS 2.0'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식 애플리케이션과 웹, 문자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의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KT는 이번 디자인 시스템 적용과 함께 고객 안내 메시지 작성과 검수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도 도입한다.

개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고객이 KT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관되고 익숙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KT는 고객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되는 화면 구성과 디자인 요소, 안내 문구 등에 KDS(KT 사용자환경 디자인 시스템)라는 공통 기준을 적용했다. 지난해 공개한 KDS 1.0의 핵심 가치 '신뢰·혁신·편의'에서 나아가 AI가 해당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참고하는 디자인 가이드를 AI가 직접 읽고 활용할 수 있는 'AI 디자이너'를 적용했다. 디자인 기준에 맞춰 화면을 구성하고 결과물을 점검할 수 있는 KDS 하네스를 구축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디자인 작업과 수정 부담을 줄이거나 일관된 화면 구성과 이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최근 공개한 AI 모델 플랫폼 '토큰팩토리'에도 활용된다. KDS 활용과 함께 기획, 디자인, 개발 과정을 병렬로 진행하고 반복적인 코딩과 문서화 작업을 자동화했다. 그 결과 총 424건의 기능 요구사항 등을 처리하는 작업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했다.

앞서 10월에는 사내에 메시지 생성 AI 에이전트 도입을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개선했다. KT는 매월 고객 혜택 소개 등을 위해 발송하는 약 1억7000만건의 메시지에 어려운 통신 전문 용어 대신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

메시지 생성 에이전트는 고객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KT의 작성 기준과 관련 법적 기준에 맞춰 작성하고 검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미지와 버튼 등을 포함하는 RCS 문자에는 내용에 적합한 이미지를 추천하고, 다국어 자동 번역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문구 작성과 검수, 이미지 제작, 번역 등을 각각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핵심 내용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가 관련 작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메시지 작성·검수 시간은 기존 30~60분에서 약 5분으로, 이미지 제작은 4시간에서 15분으로 대폭 줄었다. 이틀 이상 걸리던 번역 작업도 단 30초로 단축됐다. /조민선 기자

LGU+ '심플리 유플러스' 레드닷 본상 수상

브랜드 언어·시각 원칙 통합

LG유플러스는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시상식에서 브랜드 리브랜딩 프로젝트 '심플리 유플러스'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회사 측은 "고유의 브랜드 철학을 서비스, 오프라인 매장 등 전사 고객 경험으로 확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심플리 유플러스'를 선포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복잡함을 줄이는 브랜드 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조직별로 달리 활용하던 디자인과 소통 요소를 점검하고 브랜드 언어와 시각 원칙을 통합했다. 또한 고객이 쉽고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는 브랜드 운영 기준을 구축했다.

특히 로고나 디자인 가이드와 같은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는데에서 나아가 각 조직의 의사결정과 실행 기준까지 '심플리 유플러스' 가치를 적용했다. 각 조직은 담당 영역에서 고객 관점의 복잡한 요소를 점검하고, 보다 쉽고 명확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이어 왔다. 이에 따라 일관된 고객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 경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심플리 유플러스'를 회사의 브랜드 경쟁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글로벌 보안기업 레이븐, 한국 시장 '출사표'

금융권 중심 사업 확대
런타임 보안 기술 적용

글로벌 보안 기업 레이븐이 한국 시장에 첫 진출했다. 레이븐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레이븐(Raven.io)은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했다.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독자 기술을 앞세워 보안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자의 취약점 분석과 공격 코드 제작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보안 기술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 PHP, Node.js 등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속속 드러났다.

상용 소프트웨어 상당수가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개발하지 않은 코드도 공격 경로가 될 수 있다. 레이븐이 내세우는 핵심 기술은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보호다. 기업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실행 경로 등을 관찰하고 비정상적인 코드 실행을 선제적으로 탐지·차단한다. 기존 보안 체계가 공개된 취약점 정보(CVE)나 알려진 공격 패턴을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과 구분된다.

회사는 싱가포르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디 이그제큐티브 액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금융 등 보안 규제가 엄격한 산업을 우선 공략한다. 지난 9월부터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협력 중이다. 민감한 데이터 보호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보안 수요를 겨냥한다는 구상이다. /조민선 기자



LG CNS 마곡 본사에서 열린 '2026 로보틱스&피지컬 AI 포럼'에 글로벌 로봇 석학, LG CNS 로봇 전문가 100여명이 참가했다. /LG CNS

LG CNS, 피지컬 AI 산학 협력 강화

'로보틱스&피지컬 AI 포럼' 개최
토론토대 박사·사내 연구진 등 참석

LG CNS는 마곡 본사 퓨처로보틱스 랩에서 '2026 로보틱스&피지컬 AI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토론토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교수진 및 석·박사 학생과 LG CNS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각 분야 연구 교수들과 사내 로봇 전문가들은 피지컬 AI 기술 동향과 산업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산학 간 교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에서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데이터, 지능형 로봇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등 피지컬 AI 핵심 기술의 연구·실증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LG CNS는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1000건 이상의 로봇공학 기반 스마트팩토리·스마트물류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피지컬 AI의 산업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론칭한 로봇 학습 플랫폼 '피지컬웍스 포지'와 에이전틱AI 기반 로봇 운영·관제 플랫폼 '피지컬웍스 바통'을 소개했다. 글로벌 연구진은 로봇의 지능과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조민선 기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서학개미, 3배 레버리지에 베팅

이달 美 주식 24억달러 순매수
반도체 3배 ETF에 19억달러 집중
기술주 반등 기대에 저가 매수
손실 만회 위해 빚내서 물타기도
금리 불안 속 고위험 투자 우려


반도체 급락장에서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를 쓸어 담은 서학개미를 형상화한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직장인 이모(35)씨는 최근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4500만원어치를 산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SOXL)의 손실률이 60%에 육박하자 ‘물타기(추가 매수)’에 나서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부탁받은 친구 역시 주식으로 크게 잃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는 처지였다. 결국 이씨는 은행에서 3000만원을 빌려 예탁금 요건을 채우고 일부 금액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또 샀다. 이씨는 “여기서는 분명히 오를 것 같아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손실률이 겨우 55%로 줄었지만, 익사 직전이라 고개라도 빼꼼 내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간첩 불륜’ 스캔들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우려 속에서도 서학 개미(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기술주에 공격적으로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판단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다. 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분류되는 지수를 2배 또는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과감한 투자에 나선 경향도 나타났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11일 서학 개미들의 미 주식 매입액은 24억3802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10월(54억2312만달러)의 45%에 달한다.

서학 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올해 상반기와 뚜렷하게 차이 난다. 지난 4·5월에는 정부의 국내 증시 복귀 정책과 함께 미 증시에서 각각 4억6893만 달러와 9억3977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이후 매집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월간 순매수는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것은 기술주였다. 상위 5개 종목 중 4개가 기술주거나 관련 상품이었다. 엔비디아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간첩 불륜’ 스캔들 사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등으로 따라 글로벌 반도체주와 AI관련주 전반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도 순매수세가 이어진 것이다.

순매수 1위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SOXL)였다. 순매수 결제액은 18억9148만달러로 전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의 77.58%를 차지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도 5억1290만달러, 나스닥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울트라프로 QQQ(TQQQ)’와 2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QQQ’(QLD)도 각각 4억3535만달러, 2억9011만달러어치 사들였다.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쏠림에는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신의 예측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과잉확신’과 손실 확정을 꺼리는 ‘손실회피’ 성향이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시장의 등락 폭이 크다 보니 본인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크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이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며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복권을 사듯 ‘나도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 등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다는 데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국고채 담합 과징금에 증권사 실적 ‘휘청’

KB증권 3분기 591억 순손실 전환
NH·미래에셋 등 4분기 부담 전망
신평사 “자본·신용등급 영향 제한”
업계, 과징금 산정 반발·소송 검토


국회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전경. /허정윤 기자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의 여파가 증권사들의 하반기 실적으로 번지고 있다. 과징금 부과액을 충당부채로 잡은 증권사가 3분기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4분기에도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회사가 나올 전망이다. 증권업계가 과징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면서 최종 부담액은 불복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3분기 실적 정정 이어 4분기 부담… 이익 규모 따라 충격 차이

12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KB증권의 3분기 잠정실적 공시를 인용해 회사가 과징금 부과액 3322억원 전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장부에 잡으면서 3분기 연결 실적은 순이익 2730억원에서 순손실 591억원으로 바뀌었다. 키움증권도 같은 분기 잠정 순이익을 2386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낮췄다.

4분기에는 과징금이 분기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회사별 충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부과액이 각각 2428억원과 2148억원인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4분기 실적 부담이 커졌다고 봤다. 대신증권은 부과액이 1201억원으로 두 회사보다 작지만, 평소 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분기 적자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KB증권의 과징금 부과액은 54.2%에 해당한다. 한신평 집계에서 미래에셋증권은 36.1%, NH투자증권은 26.7%, 대신증권은 25.3%였다. 윤소정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증권업 영업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과징금 관련 비용이 반영되면 수익성 저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익 감소가 자본적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폭은 제한적이라는 게 한신평의 판단이다.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을 웃도는 KB증권의 부과액도 올해 6월 말 자기자본과 비교하면 4.2%였다. 한신평은 주요 증권사의 자본 규모와 이익창출력을 감안하면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도 제재 대상 금융회사들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신승환 나신평 책임연구원과 곽노경 금융평가1실장은 증권사별 부과액이 6월 말 자기자본의 0.3~4.2% 수준이라며, 평소 이익창출력과 유동성 대응 여력을 감안하면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나신평은 회사별 충당부채 계상 규모와 실제 납부 부담, 불복 절차에 따른 최종 부과액 변동을 점검할 계획이다.

증권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에도 현재 주가 수준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업황 둔화 우려로 증권업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7배 수준까지 낮아졌고 주요 고배당주의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약 9%에 이른다며, 중장기 저평가 매력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 증권업계 “낙찰액 기준 과도”… 납부 일정·불복 절차 변수

증권업계가 문제 삼는 건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이다. 공정위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응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국고채 낙찰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 등을 고려해 7개 법인은 고발하기로 했다.

업계는 낙찰액이 국고채를 인수하는 데 들인 금액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영업수익에 비해 제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주장한다. 전문딜러는 인수한 국고채를 보험사나 공제회 등 기관에 넘기거나 직접 운용한다. 유통시장에서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뒷받침한다. 인수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 보유분에서 평가손실이 나거나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이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제재 수위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 업계가 과징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투협, 22년째 이어온 따뜻한 나눔

김포 ‘소망의 집’ 나들이 봉사
후원금 600만원·생필품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11월 12일 경기도 김포시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의 집’을 찾아 김장 봉사와 나들이 동행 활동을 진행하고, 후원금 600만원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임직원들이 겨울을 앞두고 경기 김포의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의 집’을 찾았다. 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이용자들의 나들이에 동행했다. 2005년 결연으로 시작된 인연은 올해로 22년째다.

금투협은 12일 소망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임직원 급여를 모아 마련한 후원금 600만원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나들이에 함께한 시설 이용자들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금투협은 소망의 집과 결연을 맺은 뒤 임직원 급여를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고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연말에는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립준비청년 후원사업과 소외계층 학용품 지원, 심장병 수술 지원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회 임직원 1인 1봉사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김진억 금투협 대외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도움을 살피고, 꾸준한 봉사와 후원으로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케이뱅크 등 5개 종목 MSCI 스몰캡 편입

성호전자·삼현·우리기술 등 포함
30일 장 마감 후 변경 사항 적용

케이뱅크와 성호전자 등 국내 5개 종목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스몰캡 지수에 새로 들어간다. 중대형주로 구성된 한국 스탠더드 지수는 기존 종목을 유지한다.

MSCI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11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스몰캡 지수에 케이뱅크, 삼현, 성호전자, 대한광통신, 우리기술이 신규 편입됐다.

한화머시너리서비스, 오름테라퓨틱, SNT다이내믹스, STX엔진 등 4개 종목은 지수에서 빠진다. 변경된 종목 구성은 오는 30일 장 마감 후 반영된다.

MSCI 지수는 글로벌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운용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주가지수다.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구성 종목이 바뀌면 보유 주식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편입 종목에는 매수 수요가, 편출 종목에는 매도 물량이 생길 수 있다.

MSCI는 매년 2월과 5월, 8월, 11월 정기 리뷰를 진행한다.

전체 시가총액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가치를 반영한 유동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구성 종목을 조정한다.

/허정윤 기자

항만 크레인 고장 미리 잡는다… 부산항, AI 기술 수출 시동

싱가포르 'TOC ASIA 2026' 참가
와이어로프 상시진단 기술 선봬
위험도·잔존수명까지 예측 가능



지난 10~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TOC ASIA 2026' /BPA

부산항만공사(BPA)가 첨단기술을 해외에 선보이며 시장 개척에 나섰다. 항만 크레인의 핵심 부품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융합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해 물류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지난 10~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TOC ASIA 2026'에 참가해 '항만 크레인 와이어로프 상시진단 기술'을 알렸다. 부산항만공사와 엔키아가 2023~2025년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형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항만 크레인 와이어로프 상시진단 기술'이다.

와이어로프는 크레인의 핵심 부품이다. 점검 시 하역작업을 중단하고 정비사가 직접 손과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내부 손상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의 기술은 와이어로프에 설치한 자기센서를 통해 고밀도 자기장 신호를 상시 측정한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잡아낸다는 점에서 기존 유인점검 방식과 차별화된다. 또 하중·속도·운전시간·정비이력 등 크레인 운영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융합형 AI 모델을 적용했다. 위험도 판단과 이상 추세 예측은 물론, 와이어로프의 잔존수명까지도 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상 징후를 90% 이상 식별하는 게 목표다. 앞서 신항 3부두(HJNC) 내 안벽 크레인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했고, 목표성능 검증을 비롯해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 안정성도 확인했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와이어로프 진단 결과는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과 자동 보고서로 제공돼 교체 시기와 정비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고 예방과 함께 불필요한 조기 교체를 최소화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사는 올해 6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이후 신항 3부두(HJNC) 현장 실증 성과를 포함, 신항 1부두(PNIT)·4부두(HPNT)·7부두(DGT)와 북항 신선대부두(BPT) 등 5개 터미널의 안벽 크레인 10대로 해당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행사 둘째 날인 11일에는 '1876 BUSAN'의 입주기업인 더워터솔루션과 함께 'TECH TOC 특별세션'에서 '항만시설물 관리용 수중 AI 로봇과 부산항의 안전 및 예지보전 기술'을 소개했다. 1876 BUSAN은 공사가 해운·항만·물류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지원 시설로 총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언더워터솔루션은 싱가포르 Pier71이 주관하는 스타트업대상 국제경진대회인 '2026 스마트포트 챌린지(SPC)'에서 혁신기술 기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본선에 진출해 최종 심사를 받고 있다. Pier71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과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가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항만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기관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 현장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디딤돌이 되고자 기업들과 함께 행사에 참가했다"며 "앞으로도 부산항의 혁신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1876 BUSAN 입주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T, 베트남 박람회서 127억 수출상담 성과

시식·체험 통해 K-푸드 우수성 알려
유망품목 발굴, 기업 판로 확대 지원


'2026 하노이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한국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상순 열린 베트남 식품박람회에서 원화 127억 원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이끌어냈다.

aT는 이달 4~7일(현지시간) 열린 '2026 하노이 국제식품박람회(V&B)' 행사장에 국내 업체들과 함께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 그 결과 956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37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체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V&B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주도로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연 2회 개최되는 현지의 대표 국제식품박람회다.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10개국에서 350여 개 식품기업이 참가했으며, 식품 바이어와 관람객 1만 7000여 명이 찾았다.

aT는 과자·음료·인삼류 등 주요 수출품목을 진열했다. 또 신선과일과 건강식품, 간편식 등 수출 유망품목도 소개했다. 샤인머스캣을 비롯한 신품종 포도와 배, 단감 등 한국산 신선과일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리고, '넥스트 K-푸드 홍보' 등 다양한 시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올해 4월 검역협상 타결로 베트남 수출길이 열린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시식·홍보 행사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규 수출품목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수요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지 식품 바이어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 식품의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지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도를 고려해 한국산 농식품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베트남은 한류와 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핵심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소비 트렌드에 맞는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수출기업들이 신규 유통망을 확보하고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4위 수출시장이다.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시장이기도 하다. 올해 9월 말 기준 대 베트남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3억7144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동자들의 예술 향연… 문화예술제 성료

근로복지공단, 수상작 공개
서예작품 '마음의 꽃', 대통령상

근로복지공단이 1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47회 노동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예술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창작한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문학과 미술, 가요, 댄스 등 4개 부문에 총 5532명이 참가했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는 이나래 씨의 서예작품 '마음의 꽃'에 돌아갔다.

심사위원단은 "절제된 터치와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짜임새 있는 배치와 균형으로 시선을 사로잡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호평했다.

문학부문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심야성 씨의 '그리움, 추억의 사진첩을 남기며'가 수상했다. 가요 부문에서는 뮤지컬 위키드의 대표곡 'Defying Gravity'를 부른 김도경 씨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들 수상작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 댄스 종목은 내년부터 정규 종목으로 전환된다. 직장 동료들이 함께 춤을 연습하고 무대에 오르는 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청년 노동자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고 공사는 밝혔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자 문화예술제가 평소에 갈고닦은 재능을 선보이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축산 현장 혁신 이끌 AI 기술 찾는다

축평원, AI 경진대회 17일 결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축평원이 주관하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미래 축산기술을 엿보는 행사로, 이달 17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결선이 예정되어 있다.

축평원은 대회 관련해, 축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현장 문제 해결'이다. 참가 대상은 상용화, 알고리즘 등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지난 8월까지 참가자를 모집했고, 서면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7개 팀(상용화 3곳, 알고리즘 4곳)을 선정했다. 17일 현장 발표에 대한 온·오프라인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축평원은 우수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 등 후속 지원을 강화했다. 앞서 알고리즘 부문 '지정과제'의 1차 선정팀(대학생)에 관련 스마트축산 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멘토링 기회를 제공했다.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한 것. 창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컨설팅도 지원했다. 최종 수상팀에는 최대 5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상용화 부문 수상팀에는 상금과 함께 '2028년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참여 혜택을 부여한다. 또 축평원 스마트축산 장비 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기회와 함께 상표권 또는 SW저작권 등록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법인세 호황에 나라살림 적자 70조 감소

기획예산처, 9월 누계 8년 만에 최소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70조원 넘게 줄며 역대 최대 개선 폭을 기록했다. 9월 기준 누계 적자 규모가 32조원으로 8년 만에 가장 작았다.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6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4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5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구성된다.

법인세가 127조8000억원으로 51조9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에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9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연간 예산액인 101조3000억원보다 26조5000억원 많았다. 예산 대비 진도율이 126.2%를 기록했다. 9월 한 달 법인세 수입도 3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조6000억원 늘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법인세 분납으로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법인세 납부 실적이 좋은 데 기인해 총수입이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7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7조4000억 원 늘어난 6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7조5000억 원 증가한 9조9000억 원 걷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WANGLIM
ARTS CENTER
JANGGCHEON HALL
Pianist 강충모
(북일1회)
Pianist 이혜진
(특별초청)
Trumpeter 유병엽
(북일5회)
Saxophonist 홍순달
(북일7회)
Cellist 유지연
(북일여고4회)
초대의 글
존경하는 북일 동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반세기를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교 50주년 기념 송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북일의 명예를 빛내주신 동문 여러분을
모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모교의 더 큰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대 북일고재경총동문회장
황 규 하 올림
50년의 시간, 음악과 함께 하다
KWANGLIM ARTS CENTER
JANGGCHEON HALL
7:00
일시 : 2026년 12월 11일(금) 7:00~
장소 :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압구정로22길 21 (압구정역 4번출구)
주최 : 북일고재경총동문회
주관 : 사단법인 국제재즈교류협회
후관 : 북일고 총동문회, 북일여고 총동문회
사회자 : 편상옥 앵커(북일9회, SBS 보도본부 부국장)
이문정(북일여고2회, 전 MBC기상캐스터)
입장료 : 동문 사랑 후원 티켓 1인당 5만 원
※ 본 입장료는 북일동문의 발전과 풍성한 행사를 위해
전액 '동문 발전 후원금'으로 소중히 사용됩니다.

‘3시 하교제’ 공론화 보류… 교육계, 수업연장 의견 엇갈려

국교위, 신중론 우세… “준비 필요”
교원단체 “수업 연장은 해법 아냐”
돌봄공백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위원회 제12차 회의. /뉴시스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늦추는 이른바 ‘3시 하교제’가 공론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 하교로 발생하는 돌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됐지만, 정규수업 연장의 필요성을 두고 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교위는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의견플랫폼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연내 마련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3시 하교제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3시 하교제는 통상 오후 1시 전후인 초등 1·2학년의 정규수업 종료 시각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다.

◆국교위 “정책 구체성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대안과 실행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최영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장은 학생의 발달과 건강, 교사의 업무 부담, 교원 확충과 시설 보강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영 위원도 공론화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정책을 다시 설계한 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보미 위원은 “아이들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3시 하교제 자체에 반대했다.

반면, 김용 위원은 “정책이 제목 수준으로만 공개돼 찬반이 엇갈렸다”며 “절차 기간(6~9개월) 안에 방안을 만들어 의견을 묻자”고 주장했다. 김건 위원은 청원 절차와 별개로 돌봄 문제를 포함해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적 돌봄 한계→‘3시 하교제’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규수업 연장안이 거론되는 것은 현행 공적 돌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공적 돌봄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안정성과 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에는 국교위·한국교육개발원과 정책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정규 교육시간을 늘릴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연구진은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고 분석했다. 이어 “돌봄 공백은 개별 대응에 의존하고 있지만, 가정별 여건이 달라 보편적인 해결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 “기존 돌봄체계 보완을”

교원단체는 정규수업 연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교 시각부터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은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뿐 아니라 충분한 놀이와 휴식도 필요하다”며, “학생의 피로와 학교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기존 방과후·돌봄체계의 내실화를 제시했다. 늘봄학교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모든 학생의 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교위는 3시 하교제 공론화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논의 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언제든 착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론화는 보류됐지만, 초등생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여전히 과제다. 정규수업 연장과 기존 돌봄체계 보완 가운데 어떤 방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 학생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후속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수능 창시자의 탄식… “없애는 것이 낫다”

다큐멘터리 ‘수능 창시자’ 시사회
“사회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이런 정도의 시험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설계한 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30여 년이 흐른 현재의 수능을 두고 내놓은 평가다. 암기 위주의 학력고사를 대체하고 사고력과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발한 수능은 당초 구상과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수능 창시자: 한국 교육의 프랑켄슈타인’이 지난 10일 시사회를 열었다. 백진우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수능 도입을 주도한 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중심으로 시험의 탄생 배경과 이후 대입제도의 변화를 추적한다.

영화는 수능이 기존 학력고사의 대안으로 구상된 과정을 짚는다. 1993년 처음 시행된 수능은 학력고사가 여러 교과의 지식을 암기해 정답을 고르는 방식에 치우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언어·수리 능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은 초기 구상과 달랐다.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과 사교육의 대응, 학계의 반발 등 여러 요구가 반영되며 평가 범위와 방식이 수차례 바뀌었다. 대학이 수능을 주요 선발 기준으로 삼자 사고력 평가를 지향한 시험은 학생을 줄 세우는 역할까지 떠안았다.

수능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는 공정성과 변별력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이날 시사회와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 동국대 민세진 경제학과 교수는 “선호 대학의 정원이 제한된 만큼 학생 간 변별은 피하기 어렵고, 모두가 같은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다른 대안보다 공정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을 비판하려면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력고사와 수능을 모두 경험한 당사자이자 현재 자녀의 입시를 치르는 학부모인 강상우 씨는 문항 하나의 난이도로 학생을 구분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초 수능은 암기보다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변별력을 이유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이 학력고사 시절과 얼마나 다른지 되물으며, 수능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종각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30~40년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와 제도를 바꿔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교육이니까 따라오라’는 접근에서 벗어나 입시와 시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하며, 제도를 공급하는 쪽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제도를 어떻게 손질할지에 앞서 시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날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백 감독은 “수능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며, 영화를 통해 교육과 입시를 둘러싼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서강대, 국가 핵심기술 전문인재 키운다

KIST 공동연구·인재양성 업무협약

서강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가 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할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협력한다.

서강대는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본관에서 KIST와 ‘반도체·청정수소·우주용 복합소재 분야의 공동연구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인력 교류, 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구 연계 프로그램과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엄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KIST의 임무중심연구소 7곳 중 반도체·청정수소·우주용 복합소재 분야 연구소 3곳과 연계한다. 해당 연구소들은 서강대 교수 및 학생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시설도 함께 활용한다.

서강대는 우수 학생들을 연구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지난해 판교에 조성한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를 반도체 분야 현장 교육 및 산학 협력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서강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반도체·청정수소·우주용 복합소재 분야의 공동연구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심종혁 서강대 총장, 오상록 KIST 원장. /서강대

심종혁 총장은 “학생들이 국가 핵심 연구에 참여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한양사이버대, 일반·경영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내달 11일까지… 건축도시공학과 등 선발

한양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이 내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양사이버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2027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및 경영전문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석사 340명, 박사 100명이다. 일반대학원은 건축도시공학과, 교육공학과, 기계IT융합공학과, 디자인기획학과, 법·공무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상담·임상심리학과, 아동학과 등 8개 학과에서 선발한다. 경영전문대학원은 경영학과 내 마케팅·재무회계세무·IT경영 등 3개 트랙을 운영한다.

전형은 서류평가와 구술평가로 치러진다. 석사 과정은 학부 성적과 학업계획서, 박사 과정은 학부·석사 성적과 연구계획서를 평가한다. 구술평가는 다음 달 19~20일 화상면접으로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28일 발표한다. 등록 기간은 내년 1월 4~6일이다.

수업은 온라인 강의와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운영한다. 서울캠퍼스에서는 한양대학교 도서관과 강의실, 체육관 등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군위탁·산업체위탁 전형 등은 입학금을 면제하고, 별도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 한양대 동문·가족 장학 대상자는 1년간 수업료 20%를 감면한다.

지원은 대학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센터는 입학 일정과 전형 등을 안내하는 전용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운영한다.

한편, 한양사이버대는 다음 달 1일부터 2027학년도 학부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김수정 기자

고려대, 차세대 나노의학 비전 모색

‘Next Intelligence Symposium’ 개최

고려대학교가 글로벌 석학들과 함께 차세대 나노의학의 비전을 모색한다.

고려대는 오는 13일과 1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유임순홀에서 국제 학술심포지엄 ‘Next Intelligence Symposium 2026, NOVA’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구조 나노의학 혁명’으로, 분자 설계 기술을 약물 전달과 면역치료 등 차세대 의료 기술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에는 하버드 의대, 노스웨스턴대, 텍사스대(오스틴 캠퍼스), 애리조나주립대 등 해외 유수 기관의 석학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반응성 분자 구조, 생체재료, DNA 기반 바이오디자인 등 나노기술의 연구 성과와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고려대에서는 김종승 화학과 교수가 ‘광역학 진단·치료를 위한 분자공학’을 주제로 강연한다. KU-KIST융합대학원 이승우 교수는 ‘DNA 오리가미와 금 나노입자를 활용한 나노광학·양자광학 연구’를 발표한다.

연구진 네트워킹도 마련한다. 16일에는 고려대 신진 연구자들이 해외 연사들과 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바이오센서·약물 평가·재생의학·면역학 등 분야별 협력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잘 나가는 K-라면… 주요기업 '생산확대·해외거점' 양날개

농심, 부산 수출전문공장 가동
국내외 연간 생산능력 62억개

삼양식품, 中·베트남 등 설비 투자
해외거점 기반 관세·물류비 대응


농심 녹산수출전문공장에서 신라면이 생산되고 있다. /농심


삼양식품 밀양공장에서 불닭볶음면이 생산되고 있다. /삼양식품

해외 시장에서 K-라면 수요가 늘면서 국내 라면업계가 생산능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등 주력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자 국내 수출공장 증설과 해외 현지 생산기지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는 양상이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달 29일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건립한 첫 수출 전문공장의 가동을 시작했다. 기존 녹산공장 부지에 연면적 4만8178㎡,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된 이 공장은 봉지면 2개와 용기면 1개 등 3개 생산라인을 갖췄다. 연간 최대 5억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향후 수요에 따라 라인을 최대 8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증설로 농심의 국내 수출용 라면 생산능력은 기존 연간 7억개에서 12억개로 약 71% 증가했다. 국내 내수용 33억개와 수출용 12억개, 미국·중국 현지 공장 생산능력 17억개를 합산한 국내외 총생산능력은 연간 최대 62억개 규모로 확대됐다.

녹산공장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과 자율주행로봇, 딥러닝 품질검사 설비가 도입됐다. 봉지면은 분당 600개 이상 생산이 가능하며, 국가별 제품 규격과 포장 사양에 맞춘 품목 교체 시간도 기존 국내 공장 대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농심은 이곳을 유럽·일본·호주 등 기존 시장과 인도·중동·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 공략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년 11월 출시 후 올해 9월까지 해외 누적 판매량 1억4700만개를 기록한 신라면 툼바 등에 이어 내년 1분기에는 볶음면 신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삼양식품은 국내 공장 증설과 해외 현지 생산기지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준공한 연간 약 8억3000만개 규모의 밀양2공장이 기존 밀양1공장과 함께 수출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거점도 확대 중이다. 삼양식품은 2072억원을 투자해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첫 해외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생산라인 계획을 당초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내달 준공 후 연간 최대 11억3000만개 생산이 가능해지면 삼양식품의 글로벌 생산능력은 연간 약 37억6000만개로 늘어난다.

여기에 11일 공시를 통해 베트남 투언타잉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하고 지분 100%를 확보해 2029년 1월 31일까지 현지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초기에는 건면 라인 1개를 도입하되 향후 최대 8개 라인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원재료 조달 비용과 인건비 경쟁력을 활용해 원가를 낮추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공급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설비 투자는 해외 실적 성장에 따른 것이다. 삼양식품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918억원, 영업이익은 19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3%, 49.9% 증가했다. 해외 매출은 29.4% 늘어난 6608억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미국(2125억원·36.6%↑), 유럽(869억원·65.5%↑), 중국(2089억원·13.2%↑) 법인이 모두 성장했다.

양사의 전략은 차이를 보인다. 농심은 국내 수출전문공장을 중심으로 기존 미국·중국 거점과 연계해 수출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하는 반면, 삼양식품은 중국과 베트남에 직접 생산기지를 세워 특정 국가에 집중된 생산·물류 구조를 분산하고 관세와 물류비 부담에 대응하는 권역별 다변화 전략을 택했다.

다만 신규 공장 건설에 따른 초기 투자비와 감가상각비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가동률과 해외 판매 증가 속도에 따라 투자 회수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생산 규모 확대를 넘어 시장별 수요에 맞춘 생산 효율성과 물류 경쟁력 확보가 향후 해외사업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벤처스, 내년 바이오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롯데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스타트업-롯데그룹 협업 성과 공유
내년 상반기 엘캠프 바이오 분야 신설



롯데벤처스가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롯데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하고 올해 진행 경과와 성과를 발표했다. /롯데그룹

롯데벤처스가 스타트업과 롯데그룹 계열사 간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확대에 나선다.

롯데벤처스는 전날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2026 롯데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엘캠프(L-CAMP) 14기와 미래식단 6기에 참여한 스타트업 10개사가 참석해 올해 롯데그룹 계열사와 진행한 협업 성과와 현장 실증 사례를 발표했다.

엘캠프와 미래식단은 스타트업이 롯데 계열사에 협업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자율제안 방식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롯데벤처스는 선발 기업에 전담 투자심사역을 배정해 계열사 연결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과 직접 투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엘캠프 14기 6개사와 미래식단 6기 4개사가 참여했다. 롯데그룹 통합 사내벤처 프로그램 '롯데 유니콘 밸리'의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롯데홈쇼핑 사내벤처 엘웨이즈도 기능성 표시식품 전문 브랜드 '엘보틀'의 성장 사례를 소개했다.

스타트업과 롯데 계열사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는 대담도 진행됐다. 버티컬랩스는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피지컬 AI 솔루션의 현장 실증을 마치고 도입을 논의 중인 사례를 발표했다. 버티컬랩스 남창주 대표와 이너프유 임승혁 대표, 롯데글로벌로지스 정서영 책임 등이 참여해 협업 과정과 현장 실증을 사업화로 연결한 경험을 공유했다.

올해 선발된 10개사는 지난 2월 공모에서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약 6개월간 푸드·유통·커머스·광고·물류 분야에서 롯데 계열사와 총 132건의 미팅을 진행했으며, 16개 계열사와 20여 건의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 롯데벤처스는 참여 기업에 3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약 24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확보도 지원했다.

롯데벤처스는 내년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영역을 바이오 분야로 넓힌다. 2027년 상반기 엘캠프 모집부터 바이오 분야를 신설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바이오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바이오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과 그룹 계열사와의 협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욱 롯데벤처스 대표는 "투자 수익 추구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 현장에서 함께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롯데그룹이 함께 혁신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애경산업 '시그닉'
PDRN 성분 세럼·크림 선봬

찬 바람에 피부가 갈라지고 아침마다 공들인 메이크업이 들뜨기 쉬운 계절에는 피부 보습을 위한 뷰티가 필요하다. 애경산업은 스킨케어 브랜드 시그닉에서 '자작나무 PDRN 수분광 세럼·크림(사진)'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핀란드산 자작나무 유래 PDRN 성분을 20만 ppm 고함량으로 처방했다. 해당 성분은 피부 천연 보습 인자와 닮은 자작나무 유래 성분의 특성에 착안해 애경산업 연구소가 특허 출원한 원료다. 겉은 번들거리면서도 속은 바싹 마르는 속당김, 푸석함 등을 개선해 준다. 또 히알루론산, 베타글루칸 등 보습 성분을 더하고 유효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독자 '딥포좀' 기술력까지 집약했다.

우선 자작나무 PDRN 수분광 세럼은 수분 장벽 캡슐 제품이다. 인체적용시험에서 각질층 20층 속수분 개선, 손상 피부 장벽 개선 등을 입증했다. 피부 광채는 39.3%, 피부결은 13.2%, 피부 치밀도는 3.91% 개선하는 효과까지 보였다.

자작나무 PDRN 수분광 크림은 200시간 동안 이어지는 보습 지속력을 갖췄다. 특히 피부과 특수 관리 후 예민한 피부에도 적합하게 설계됐다. 임상시험 결과, 1회 사용만으로 피부 수분량이 88.4% 급상승했고, 피부 윤기 18.6%, 투명도 6.31% 개선 효과까지 확인됐다.

두 제품 모두 파라벤, 벤조페논 등 걱정 성분 35종을 배제하고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CJ프레시웨이, B2B 소스시장 본격 공략

실온소스 제품군 확대 계획

CJ프레시웨이가 외식·급식 사업장의 수요에 맞춘 실온 소스 개발을 확대하며 B2B 소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상온 유통에 적합한 보관 편의성과 메뉴별 맛 품질을 앞세워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CJ프레시웨이는 올해 1~3분기 실온 소스 35종을 신규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소스 자체브랜드(PB) 상품 가운데 실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다. 같은 기간 관련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지난 9월에는 업소용 실온 양념장 9종을 출시했다. 소갈비·돼지불고기·소불고기·잡채·떡볶이 등 한식 메뉴부터 소이갈릭·닭강정·돈가스·우동까지 다양한 메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CJ프레시웨이는 상품 기획부터 배합 설계, 제조 공정, 품질 관리까지 이어지는 개발 체계를 바탕으로 실온 소스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외식·급식 사업장별 메뉴와 조리 환경에 맞춘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연구개발(R&D) 역량과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실온 소스 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ESG 성과 '뚜렷'

11개 계열사 평가 '통합 A등급' 이상

현대백화점그룹의 11개 상장 계열사가 ESG 평가에서 모두 통합 A등급 이상을 획득했다. 그룹 차원의 ESG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계열사별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가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2026년 ESG 평가에서 11개 상장 계열사가 통합 A등급 이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통합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계열사는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리바트, 현대퓨처넷, 현대이지웰, 현대에버다임, 현대바이오랜드, 지누스, 대원강업 등 총 11개사다.

특히 현대그린푸드가 친환경 경영과 지속가능한 식문화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환경(E) 부문 등급이 A+로 상승했다. 현대퓨처넷도 환경 부문 평가에서 성과를 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A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그룹 내 유통·식품·패션·리빙·제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이 고르게 A등급 이상을 확보했다. /신원선 기자

HLB제약, 자체 생산 늘리고 신약 공급… '1조 제약사' 도약

550억 투입 향남 신공장 첫 삽
연간 생산능력 약 3배로 확대
위탁 물량 자체 생산해 비용 절감
신규 의약품·CMO 사업도 확장
2036년 국내 10대 제약사 목표



진양곤 HLB 의장이 HLB제약 향남 신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HLB제약이 자체 생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확충해 가파른 외형 성장에 대응하는 한편, HLB그룹의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상업화를 뒷받침하며 오는 2036년 매출 1조원 달성과 국내 10대 제약사 진입을 이뤄낸다 구상이다.

HLB그룹은 12일 경기 화성 향남에서 '신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향남 신공장 건립은 총 550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핵심 사업이다. 대지면적 3만 1243.9㎡ 부지에 건축면적 3642.02㎡, 연면적 1만 1930.99㎡(약 3610평) 규모로 조성된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공장동과 폐기물 처리장, 위험물 저장소 등 총 3개 동이 들어선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각각 주차장, 보관실 및 물류 입출하장, 자동화 생산시설, 실험실 및 유틸리티실 등을 배치해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효율을 극대화한다.

신공장의 목표 생산능력은 연간 약 7억정으로 기존 남양주공장(연간 약 2억 5000만정)의 3배에 달한다. 준공은 오는 2028년 1월 말로 예정됐고 이후 GMP 적합판정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부터 남양주공장의 제조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해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한다.

이러한 대규모 증설은 HLB제약 본업의 가파른 실적 성장과 맞물린다.

HLB제약은 지난 2020년 10월 HLB그룹 편입하며 외형을 빠르게 키웠다.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매출 2056억원을 기록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00억원대 연간 매출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도 연결기준 누적 매출 1279억원, 영업이익 10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6.8%, 영업이익은 414.0% 커진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이다.

로수듀오·틴자·씨트로신 등 전문의약품(ETC)의 원외처방 순위가 2020년 101위에서 올해 42위까지 도약한 데다, 관절 건강기능식품 '콴첼' 등 컨슈머헬스케어 사업의 판매호조, 자회사 신화어드밴스 실적 편입이 주효했다.

향남 신공장이 가동되면 그동안 외부에 위탁하던 의약품 물량을 자체 생산으로 전환해 위탁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확보된 생산 여력은 신규 제네릭 및 개량신약 출시와 의약품 수탁생산(CMO) 사업 확장에 투입돼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2027~2028년 신공장 조기 안정화에 주력한 뒤, 2029~2031년 자체 약물전달 플랫폼(SMEB)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등 개량신약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2032~2035년에는 항암·비뇨기·희귀질환 분야 대형 제품 도입과 기술 도입으로 성장동력을 추가하고 2036년 이후에는 전략적 인수합병도 추진한다.

특히 HLB그룹은 HLB제약을 통해 그룹 전반의 가치사슬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을 획득한 담관암 치료제 '리픽투'를 시작으로 HLB그룹이 개발 중인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의 국내외 상업 생산 및 공급도 수행한다는 보간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박재형 HLB제약 대표는 "향남 신공장은 외부 위탁 물량의 자체 생산 전환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룹 제약사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전 시공을 바탕으로 2036년 매출 1조원 달성 비전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양곤 HLB그룹 의장은 "신약 개발을 본격 시작한 지 19년 만에 글로벌 항암 신약 FDA 승인을 이뤄낸 도전과 극복의 DNA를 이곳 향남공장에서 구체화할 것"이라며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을 넘어 환자와 의료진이 원하는 좋은 약을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대웅제약, 장 점막 재생 신약 개발 '속도'

6625억 규모 기술도입 6개월 만에 성과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임상 1상 승인
차세대 경구제로 글로벌 시장 공략

대웅제약이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과 기술수출 성과 창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손상된 장 점막 자체를 재생시키는 차세대 기전의 경구용 신약 후보물질이 기술도입 계약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첫 임상 관문을 통과하면서다.

대웅제약은 염증성 장질환 경구용 치료제 후보물질 'DWP309008'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1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DWP309008은 대웅제약이 지난 5월 이노보테라퓨틱스로부터 총 6625억원 규모로 도입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대규모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지 약 6개월 만에 임상 진입 승인을 확보하며 오픈이노베이션 개발 속도를 입증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염증성 장질환은 장 내 만성 염증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기존 생물학적 제제와 면역조절제는 초기 반응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장기 관해 유지와 손상된 장 점막 치유가 핵심 미충족 의료 수요로 꼽힌다.

DWP309008은 장 점막 보호와 회복에 관여하는 물질 프로스타글란딘2(PGE2)을 분해하는 효소 '15-PGDH'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15-PGDH 작용을 막아 체내 PGE2 수치를 유지함으로써 손상된 장 점막의 재생을 촉진한다.

비임상 연구에서 대장 조직 내 높은 약물 노출도와 뚜렷한 점막 치유 효과가 확인됐으며, 대웅제약은 이를 바탕으로 계열 내 최고(베스트 인 클래스) 경구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번 임상 1a상은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이승환 교수 주도하에 건강한 성인 88명에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 등을 평가한다. 글로벌 임상 개발에 활용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종의 시험대상자를 포함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한미사이언스, 지혈제 3종 들고 독일행

16~19일 '메디카 2026' 참가

지난해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이후 첫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두며 시장성을 확인한 한미사이언스가 올해도 독일 무대를 밟고 수술용 지혈제 3종을 앞세워 실질적인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규 판로 개척에 속도를 낸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6~19일(현지 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 '메디카 2026'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자사 의료기기 제품의 경쟁력을 알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바이오서저리 전문기업 테라시온 바이오메디칼이 개발하고 한미사이언스가 해외 판매권을 보유한 수술용 지혈제 3종을 주력으로 선보인다. 출품 품목은 ▲흡수성 분말형 보조지혈제 '우즈픽스' ▲폴록사머 기반 흡수성 뼈 지혈제 '타블로 왁스' ▲트롬빈 및 식물성 전분 기반 흡수성 지혈제 '액티클랏'이다.



한미사이언스 수술용 지혈제 3종.

한미사이언스 의료기기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메디카 2025'에서 확인한 글로벌 시장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존 파트너십 강화와 신규 협력 기회 발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비세큐마' 호주 허가 신청 글로벌 시장 확대 본격화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비세큐마(BESEQUMA)'에 대해 호주 의약품청(TGA)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허가 신청은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호주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셀트리온은 허가 신청에 앞서 건강한 피험자 172명을 대상으로 'CT-P55'(비세큐마 개발명) 임상을 진행했다. 해당 임상에서 CT-P55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물동태학적(PK) 동등성을 입증했으며, 안전성 및 면역원성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5월 캐나다를 시작으로, 6월 한국, 7월 미국과 유럽에서 비세큐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 호주 허가 신청을 발판 삼아 상업화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바이오 연구 숨통 트이나… 근로시간 특례 추진

바이오협회, 초광역특구법 발의 환영
R&D 근로시간·기간제 사용 특례 담겨

살아있는 세포의 대사 주기에 맞춘 연속 실험이 필수적인 바이오 연구 현장의 특수성이 입법안에 반영됨에 따라, 유연한 연구 환경 조성과 숙련 인력의 고용 안정을 통한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및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10월 20일 국회에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 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 연구개발(R&D) 분야 노동 특례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연구개발 전문인력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바이오 연구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핵심 특례 조항이 담겼다.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협회는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바이오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했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실험의 경우 세포 성장 속도와 대사 주기에 맞춰 연속 모니터링, 영양분 교체, 샘플 채취 등을 진행해야 해 작업을 임의로 중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1주 단위로 획일 적용되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 아래에서는 연구 흐름이 끊기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청하 기자

보령, 글로벌 항암제 공급난에 생산 확대

500억 들여 항암주사제동 신설

보령이 전 세계적인 필수항암제 공급 부족에 적극 대응하며 내수 중심 생산기지를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및 수출 전진기지로 강화하는 투자를 본격화한다. 오리지널 항암제 인수부터 자체 생산 내재화,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글로벌 수익 모델을 확장하는 데 속도를 낸다.

보령은 12일 충남 예산군 의약품 생산단지 '보령 예산캠퍼스'에서 항암제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제2항암주사제동'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약 5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제2항암주사제동을 완공할 계획이다. 준공이 완료되면 예산캠퍼스의 연간 항암주사제 생산능력은 기존 600만 바이알에서 1320만 바이알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이번 증설은 까다로운 공정과 수익성 문제로 전 세계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는 세포독성항암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보령은 이번 인프라 확충을 통해 예산캠퍼스를 기존 내수 중심 시설에서 다품목·다제형 생산과 해외 공급을 총괄하는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미 예산캠퍼스는 글로벌 CDMO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가동되고 있다. 보령은 지난 5월 예산캠퍼스에서 생산한 항암제 '알림타'를 대만 제약사 로터스에 공급하며 첫 해외 CDMO 물량을 출하했으며, 쥴릭파마와 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7년부터는 동남아시아 7개 국가에 알림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일 시 2026년 11월 18일(수) 14:00~17: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이경전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김지섭
-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한영섭
- LG유플러스 AI R&D랩장



박기철
-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현창호
-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조경태** 국회의원 **이우용** 한국SW · AX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
강연	14:50~15:20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 AI 전환의 허와 실
	15:20~15:50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
	15:50~16:20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랜드
	16:20~16:50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팀장 :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기부·헌혈·봉사로 온정 나눈 삼성… 기부금 3억 조성

나눔의 날 행사 열고 2주간 성과 공유
23개 관계사 임직원 10.8만명 참여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DS부문 경영진들이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찾아 과자 만들기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12일 경기 화성사업장 DSR타워에서 '2026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일부터 2주간 진행된 '나눔위크'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와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나눔위크에는 삼성 23개 관계사 임직원 10만8000여명(국내 기준)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사원증을 태깅해 1000원씩 기부하는 '나눔키오스크'를 비롯해 헌혈 캠페인과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삼성은 나눔위크 기간 도움이 필요한 아동 20명을 선정해 각각 1000만원 지원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했으며 나눔키오스크 특별모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나눔키오스크는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 시작해 현재 23개 관계사 국내외 사업장에 총 156대가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생명 나눔을 위한 헌혈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1996년부터 매년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30년간 누적 참여 임직원은 45만여명에 달한다. 헌혈 인프라 확대를 위해 헌혈버스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20대를 제작해 전달했으며 향후 총 4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는 임직원뿐 아니라 경영진도 함께했다.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과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1월 3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희망별숲'을 찾아 쿠키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노태문 DX부문장 사장도 11월 7일 수원시 광교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조리 봉사에 참여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노사 상생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가게'의 첫 기부금 전달식도 열렸다. 나눔가게는 임직원들이 사업장 인근 지정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하면 해당 점포가 매출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삼성전자 등 17개 관계사의 22개 사업장 주변에서 370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다. 기부금은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신한은행, 외국인 유학생 정착 돕는다

신한은행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글로벌센터, 오픈놀과 협력에 나섰다. 업무협약식에서 이승목 신한은행 고객솔루션그룹장(가운데)과 권보근 서울글로벌센터 센터장(왼쪽 첫 번째)과 정산 ㈜오픈놀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쿠팡CFS, 인천 취약계층에 김치 나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김장철을 맞아 인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김치통 2200개를 기부했다. CFS 정한모 정책실장(오른쪽)과 인천서해구복지재단 신순호 상임이사가 지난 11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3회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쿠팡


델핀 아르노 크리스찬 디올 최고경영자(CEO)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김영의홀에서 열린 명예박사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디올 델핀 아르노 방한에 재계 총수 집결

이화여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을 이끄는 델핀 아르노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김영의홀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부부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대표 겸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아르노 회장은 이날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으로부터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수여 후 재계 인사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특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다른 참석자들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아르노 회장 곁에 남아 손을 맞잡고 손가락 하트를 만드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

이 사장과 아르노 일가는 오랜 기간 교류해 왔다. 1991년 루이비통 국내 첫 매장이 신라호텔에 입점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신라면세점이 세계 최초로 루이비통의 공항 면세점 입점을 성사시켰다.

롯데그룹과 LVMH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델핀 아르노 회장이 방한했을 당시 신동빈 회장과 신유열 실장은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이들을 직접 맞이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에이스침대, 박보검과 연탄 나눔

서울 상계동서 연탄 배달 봉사 활동
4년간 기부 연탄 총 44만장 넘어

에이스침대가 겨울을 앞두고 브랜드 모델 박보검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회사가 올해까지 4년간 후원한 연탄은 총 44만장이 넘는다.

에이스침대는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기부식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부금은 연탄 10만장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날 기부식에 이어 에이스침대 임직원과 브랜드 모델인 배우 박보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50여 명은 상계동 일대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 참가자들은 좁은 골목길을 오가며 연탄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김승호 기자 bada@



에이스침대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고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브랜드 모델 박보검((왼쪽 2번째부터)이 봉사활동을 하기전 기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이스침대

롯데월드, 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 이벤트

어드벤처 종합이용권 27000원

롯데월드가 수능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을 위해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수능 당일인 이달 19일부터 롯데월드 전국 4개 사업장(어드벤처, 어드벤처 부산,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에서 진행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 매표소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와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을 제시하면 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는 수험생에게 종합이용권을 2만7000원에 제공한다. 수능 직후 어드벤처를 방문한다면 20일까지 연장해 진행하는 '다크 판타지 페스티벌' 공연을 놓치지 말자. SNS에서 화제를 모은 '베스퍼', '캔드라', '로젤' 등 인기 있는 캐릭터들을 이번 기회에 어드벤처에서 만날 수 있다. 어드벤처의 수험생 특별 할인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종합이용권을 2만원에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서울시교육청
학생스포츠 교류 한마당

서울과 전남광주 학생들이 친선경기를 펼치며 지역 간 화합을 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에서 '2026학년도 서울-전남광주 학생스포츠 교류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권과 호남권 학생이 스포츠로 유대를 형성하고, 두 교육청이 협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양 지역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학생 및 지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인 사 ◆국가유산청 ◇과장급 전보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권오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선임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임정석

부 음 ▲김분녀(향년 96세)씨 별세, 김현숙·김현주·김윤희·김명좌·김우석(삼성자산운용 대표)·김정연 모친상, 이중훈·문순수·김동일·홍의·최상길 장모상, 김유진 시모상, 김묘선·김영준 조모상= 11일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4일 오전 , 장지 강릉공원묘원, 02-3410-3151. ▲방명숙씨 별세, 이기창(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씨 조모상 = 11일, 화성함백산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20분. 031-293-4244. ▲김종성(창녕군 농식품유통과 상생협력 T/F팀장)씨 부친상·강부혜(민원봉사과 주무관)씨 시부상 = 12일, 밀양시 중앙로 114(가곡동) 밀양시민장례식장 2층 1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40분, 장지 밀양시 상동면 선영. 055-354-0444



종근당고촌재단, 동남아 장학생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은 2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뒷줄 왼쪽 세번째)과 나디아 파르하나 샤프한 인도네시아국립대학 약학대학 부학장이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삼립, 지역 농산물 활용·농가 상생

삼립이 논산딸기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지역 농가와의 상생 협력에 나선다. 11일 서울 양재동 삼립 본사에서 열린 '논산딸기 소비 확대 및 지역상생 업무협약식'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왼쪽)과 정인호 삼립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립

오늘의 날씨

해뜸 / 07:09 | 해짐 / 17:23

11월
13일 (금)
음력 : 10월 5일

수도권 날씨
8 ~ 18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제4회 2026 GLOBAL ACX AWARDS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 전환 확산을 이끄는 도약의 장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AI 전환) 확산에 기여한 우수 제품·서비스 및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발전에 헌신해 온 기업과 관계자 여러분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SW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공유와 함께 국산 AX 혁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귀빈 여러분을 정중히 모시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01. 행사 개요

일 시	**2026년 11월 25일(수) 13:30 ~ 16:00** (본행사 14:00 ~ 16:00)
장 소	**메타빌드빌딩 AI Space Center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B1F)
주최 / 주관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사)한국SW·AX총연합회,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
후 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방인공지능융합협회, 인공지능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AI융합기술인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PMO사회적협동조합, 한국PMO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AI데이터산업협회, 한국상용인공지능SW협회,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한국핀테크협회 외
시상 부문	특별공로상 / 인재상 / AI 활용우수사례상 / 제품·서비스상

02.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소요	주요 내용	비고 / 진행
13:30 ~ 14:00	30'	등록 및 VIP 사전 환담	VIP 대기실
14:00 ~ 14:05	5'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주요 내빈 소개	사회자
14:05 ~ 14:10	5'	환영사 및 개회사	(사)한국SW·AX총연합회장
14:10 ~ 14:25	15'	축사 및 격려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의원 주관언론사
14:25 ~ 14:45	20'	**정책기조연설 :** SW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45 ~ 15:00	15'	국산 AX 혁신 제품·서비스 성과 및 도입 성공사례 발표	대표 수상기업 1개사
15:00 ~ 15:05	5'	심사경과 보고 및 최종 수상자 발표	심사위원장
15:05 ~ 15:40	35'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본 시상**	부문별 유공자 및 우수기업
15:40 ~ 15:55	15'	전체 수상자 및 주요 내빈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5:55 ~ 16:00	5'	폐회선언 및 장내 정리	사회자

*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캔

[참가 신청 및 참석 회신 안내]

- 온라인 사전등록 URL : https://www.kswict.or.kr/awards-ceremony-2026
- 원활한 행사진행 및 지정 좌석 배치를 위해 **사전에 참석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공간이 협소하오니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며,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사무국 (문의: 02-858-8510 / 사무총장 박환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른 진학 전략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전환, 성취도(A~E) 병기, 통합형 수능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한다. 특히 내신 1등급 비율이 상위 4%에서 10%로 확대되면서 일반고 1등급의 정량적 변별력 약화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특목·자사고에서 하위 등급으로 밀려날 위험과 일반고에서 내신을 따더라도 학생부 내용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딜레마가 공존한다.

그러나 대학은 수치적 착시에 의존하지 않고,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분할점수, 지필/수행 비율, 수행평가 영역명 등 3대 신규 제공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학생의 실제 학업 역량을 입체적으로 검증한다. 따라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정성평가의 정교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신 5등급제하에서는 동일 1등급 내에서도 원점수 고득점 여부가 중요해진다. 이에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여 학업 역량 미달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수업 시간 내 완결형으로 개편된 수행평가의 '영역명'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의 신뢰도를 판가름하는 핵심 단서가 된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단순 방법 중심(발표, 포트폴리오)보다 교과 성취기준에 입각한 '주제×방법' 결합형 영역명(예: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문학 비평문 쓰기)을 강력히 선호한다. 세특 기록이 화려해도 수행평가 영역명이 '어휘 테스트' 수준이라면 정성평가에서 하향 평가받는다. 수행평가 영역명은 세특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투명한 창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은 학교의 교육과정, 시험 난이도, 주어진 환경 내 학생의 자발적 노력을 종합 평가하는 '맥락적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특목·자사고는 심화 교육과정과 생기부 관리 노하우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일반고는 1등급 확보가 용이하여 수능 최저 충족 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절대적 강점을 가지며, 수행평가와 세특 관리가 내실화될 경우 종합전형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정시전형에서는 수능 중심 학습 분위기가 조성된 특목·자사고 및 외고·국제고가 유리하지만, 일반고 수험생 역시 수능 최저 준비와 결합하면 학종과 교과전형을 동시 공략하는 최적의 대입 전략을 완성할 수 있다.

성공적인 고교 선택을 위해서는 학생의 성향(자기주도성, 경쟁 탄력성, 학업 집중도)과 고교 환경 지표(수행평가 설계 방식, 200~300명 이상의 모집단 규모, 교육과정 유연성, 학업 중단율)를 과학적으로 매칭해야 한다.

자기주도성과 경쟁 탄력성, 학업 집중도가 모두 뛰어난 학생은 특목·자사고 진학이 유리하다. 반면 학업 역량과 탐구 심화 흥미는 높으나 경쟁 스트레스에 약한 학생은 수행평가와 교육과정이 내실화된 일반고에서 안정적 1등급을 확보하며 학종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도성과 경쟁 탄력성이 보통 이하인 학생은 대규모 일반고에서 내신 상위권과 수능을 병행하는 전략이 권장된다.

수험생은 수업 내 수행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고차원적 사고력을 세특에 담아내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 고교 입학 초기부터 수능 핵심 영역 학습을 병행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수행평가 영역명을 '주제×방법' 결합형으로 구체화·범주화하여 평가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학부모와 수험생은 진단검사 등을 통해 학생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고교 환경 지표를 검증함으로써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설비비 넘으니 전기요금… 두 번 막힌 전기화



기자 수첩
원 관 희
〈산업부〉

가스보일러를 전기 히트펌프로 교체하려는 기업은 두 가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설비 교체 비용과 함께 교체 이후 들어가는 전기요금 비용이다. 탄소를 줄이겠다는 목표에 동의하더라도 두가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투자 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녹색전환(K-GX)의 핵심 과제로 산업부문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움직임은 아직 더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307개사를 조사한 결과 전기화를 추진 중인 기업은 31.9%에 그쳤다. 오히려 추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62.9%나 달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기업의 전환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이미 전기화를 추진하는 기업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 꼽은 부담 요인으로 초기 투자비가 84.0%, 운영비가 56.2%였다. 설비를 바꾸는 비용뿐 아니라 바꾼 뒤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전기화는 기업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기존의 설비와 공정을 모두 바꾸는 일이다. 그렇다 보니 초기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이후 운영비가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늘어난다면 전기화로의 전환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 주요 선진 국가들은 이런 운영상 문제를 지원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독일은 녹색투자를 조건으로 전기요금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에너지효율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감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기화에 나선 기업의 전력비용을 덜어주는 제도가 아직 없다 보니 기업들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눈을 돌리고 있다.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이 최대 10%가량 낮아지면 전기화 이후 늘어날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요금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설비 교체비와 운영비를 함께 감당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요금제에 거는 관심을 실제 투자로 끌어내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설비 교체비를 얼마나 지원할지와 함께 전환 이후 전력비용을 어떻게 낮출지, 기업이 장기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전기국가'로의 전환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전기를 쓰라고 권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이 설비를 바꾸고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뒤따라줘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3일 (음 10월 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새로운 일보다 현재의 일을 다시 돌아보세요. **60년생** 큰 낭패를 볼 수 도 있습니다. **72년생** 건강에 주의 해야 합니다. **84년생** 실력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9년생 침착하게 다음 기회를 노리면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61년생** 의심은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립니다. **73년생** 남녀의 만남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85년생**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50년생 한 발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입니다. **62년생** 성공할 기운이 보입니다. **74년생**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지 마세요. **86년생** 직장문제도 점차 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51년생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집니다. **63년생**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75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길합니다. **87년생** 현재의 괴로움을 인정하세요.

52년생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64년생** 너무 밤길을 나돌지 마세요. **76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88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됩니다.

53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65년생**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77년생** 주변사람들과 협동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89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54년생 당신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66년생** 모든 운이 따르니 대범하게 행동하세요. **78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습니다. **9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55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67년생** 주변인들과 의견이 상반되어 위기가 옵니다. **79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91년생**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세요.

56년생 모든 일에 운이 따릅니다. **68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합니다. **80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습니다. **92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집니다.

57년생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합니다. **69년생**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81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세요. **93년생** 큰 금전의 계약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58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70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 입니다. **82년생** 금전운이 좋아 기쁜 마음입니다. **94년생**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59년생 당황하지 말고 기운을 내면 잘 풀릴 듯합니다. **71년생** 조금만 참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83년생** 감정에 솔직하세요. **95년생**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김상회의 四季

이름과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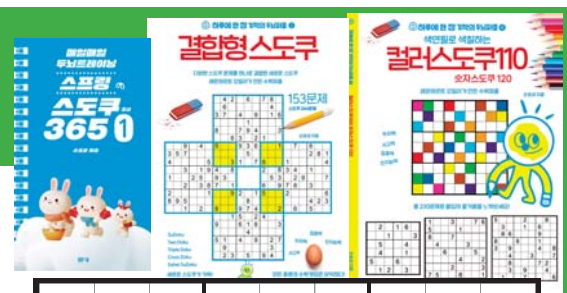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허랑이는 죽엇 가죽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름은 곧 성명(姓名)을 말함이다. 내가 속한 조상들의 뿌리를 밝히면서 자신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곧 이름인 것이다. 모든 이들은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는다. 성과 이름이 있어서 통틀어 성명이라 부르는 것이지만 평생 이름은 나라는 존재와 하나가 된다. 우리 민족은 특히나 이름에 거는 의미와 기대가 대단했다.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후에 까지도 항시 나를 대변해 주는 상징임은 물론 지속하는 정체성 그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성명은 후천적인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기에 성명학, 성명수리학 등을 적용하여 좋은 이름을 짓는데 진심이었다. 서양 역시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고대 로마에는 "이름이 곧 운명(Nomen est omen)"이라는 격언이 있다 하니 말이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름 자체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동양에서는 제후나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피휘 문화가 당연시되었으며, 일반 양반도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저어하여 아호 또는 호를 지어서 칭명했다. 성명학은 이름의 획수와 오행을 분석해 운명적 기운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소리 발음의 오행과 항렬까지 맞추려면 의외로 좋은 이름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불용문자는 큰 의미가 없음이나 불용한자(不用漢字)를 불리하게 인식하기에 이름 짓기에 진땀을 흘린다. 이러한 성명학적 관점은 단순한 통념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름이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발음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즉 이름을 지을 때는 성씨와의 조화, 발음의 편의성, 한자의 의미, 사주와의 조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5		1			8	
9	8						7	
		2				5		
			7		3	1		6
			4		1			
2		7	9		5			
		4				7		
	7						6	5
	5			7		8		9

9	8				5			
6		2				7		
		7	2	1				
7	2		1		9			
		5		2		8		
			5		8		7	4
				5	7	4		
		9				3		6
			3				9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4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그르기치 힐스, 첫 잔부터 마지막 한 모금까지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49

인터뷰 | 美그르기치 힐스 CEO 바이올렛 그르기치







❶ 마이크 그르기치 생전 함께 포도밭을 거닐고 있는 바이올렛 그르기치. ❷ 왼쪽부터 그르기치 힐스 나파 밸리 카버네 소비뇽 2021, 그르기치 힐스 파리 76 샤도네이 2023. ❸ 파리 76 샤도네이가 만들어지는 카네로스 빈야드 전경. /안상미 기자, 나르셀라

"그르기치 힐스의 와인은 마지막 한 모금이 첫 모금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잔에 따른 순간부터 향이 겹겹이 열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얼굴을 보여 준다. 한 편의 소설처럼 계속 읽게 되고, 그때마다 반전이 있는 와인이다."

미국 나파 밸리 그르기치 힐스 에스테이트(Grgich Hills Estate)의 바이올렛 그르기치 최고경영자(CEO)는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온 원칙은 '균형감'"이라며 "와인이 묵직하든 가볍든 향과 맛, 산도, 타닌, 알코올 가운데 어느 하나 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몇 년에 걸쳐서뿐 아니라 마시는 동안 잔 안에서도 계속 자라고 발전하는 와인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르기치 힐스는 197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첫 삽을 떴다. 창립자 마이크 그르기치는 바이올렛의 아버지다. 크로아티아 작은 마을에서 자라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그는 "미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고, 나파 밸리는 낙원"이라는 교수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다.

유명한 와이너리들을 거치며 당시 최신 양조 기술을 섭렵했던 그가 양조 철학을 세운 것은 친구의 홈메이드 와인을 맛보면서였다. 온갖 기술을 동원한 자신의 와인을 제쳐두고 정제도 여과도 하지 않던 친구의 와인만 정신없이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바이올렛은 "좋은 포도를 구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와인이었다"며 "그때 최고의 포도를 쓰고, 최소한으로 손대고, 사람들이 잔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의 진짜 철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원칙이 빛을 발한 게 바로 샤토 몬텔레나 샤르도네다. 그가 와인메이커로 만든 두 번째 빈티지 1973 샤르도네가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 프랑스 부르고뉴 화이트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나파가 세계 와인 지도에 이름을 올린 순간이자 그가 '샤르도네의 왕'으로 불린 계기다.



올해는 파리의 심판 50주년이다. 그래서 50주년 빈티지인 '그르기치 힐스 파리 76 샤도네이' 2023 빈티지가 선을 보인다. 병 라벨도 의미를 살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장미창 무늬를 눌러 새겼다. 국내에는 내년 중반쯤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파리 76 샤도네이는 서늘한 기후의 카르네로스 빈야드 포도로만 만든다. 그것도 1980년대에 심은 것들이다. 당시 식재 직후 필록세라가 번지자 물을 깊게, 간격을 길게 줘 뿌리가 필록세라가 싫어하는 모래층을 뚫고 내려가게 했다. 나무 사이사이에는 저항성 대목을 심었다.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대신 택한 방법이 통했고, 덕분에 지금도 올드바인에서 와인을 만든다.

2023 빈티지는 잘 익은 복숭아와 사과향이 올라오고 생동감 있는 산도와 함께 은은한 짭조름함이 길게 이어진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보니 화이트 와인이지만 부위별 한우 구이는 물론 광장시장의 전과도 잘 어울렸다고 한다.

그르기치는 2000년 유기농, 2003년 바이오다이내믹에 이어 2018년 '재생 유기농(Regenerative Organic)'으로 농법을 개선해 왔다. 이제 유기농법은 거창한 구호도,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도 아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다.

그는 "재생 유기농법 덕분에 나파 밸리를 황폐하게 만든 폭염이나 산불로부터 보호받는다"며 "2022년 화씨 118도(섭씨 약 48도)의 폭염이 열흘간 이어졌을 당시 이웃한 포도밭은 포도를 모두 잃었지만 우리는 큰 충격 없이 안정적이었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르기치 힐스의 수출 시장 부동의 1위다. 관세 전쟁이 있기 전부터 이미 미국 와인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캐나다도 앞질렀다. 와인 시장 자체가 주춤하고, 나파에서도 가족 경영 와이너리는 자취를 감추는 쉽지 않은 시기지만 그르기치의 와인은 오히려 판매가 늘었다. 비결을 묻자 아버지 마이크가 평생 입버릇처럼 남긴 말을 들려줬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어라."

/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공연부터 애니까지 특별관서 본다

CGV, 11월 기술특별관 라인업 공개
임영웅 공연, 듄, 헥스 등 다양한 장르

CGV가 공연 실황과 애니메이션,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기술 특별관에서 선보이며 관객 공략에 나선다.

CGV는 11월 기술 특별관 라인업으로 '듄', '임영웅 I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 '폭설', '헥스: 마녀왕국', '진격의 거인: 자유의 날개', '명탐정 코난: 하이웨이의 타천사' 등 6편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듄'은 오는 17일까지 IMAX로 상영한다. 사막 행성 아라키스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주인공 폴의 운명을 그린 작품으로, 광활한 사막과 우주선 등 대규모 영상과 사운드를 IMAX로 감상할 수 있다. 오는 12월 16일 시리즈 완결편 '듄: 파트 3' 개봉을 앞두고 진행하는 재상영이다. '듄: 파트 2'도 12월 IMAX 재개봉을 앞두고 있다.

18일에는 임영웅의 데뷔 10주년 기념 공연 실황 '임영웅 I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가 SCREENX와 IMAX로 개봉한다. SCREENX는 촬영 단계부터 전용 연출을 고려했으며, 전 장면을 8K 시네마 카메라로 촬영해 고양스타디움 공연과 관객들의 현장 분위기를 담았다.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정면과 좌우, 천장까지 확장되는 4면 SCREENX 상영도 진행한다.



'듄', '임영웅 I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 특별관 포스터. /CGV

같은 날 개봉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폭설'은 4DX로 관객을 만난다. 폭설로 고립된 시골 기차역에서 의문의 시신을 발견한 역장과 후임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눈과 바람 효과, 모션 체어를 통해 겨울 기차역의 분위기와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의 긴장감을 구현한다.

25일에는 판타지 애니메이션 '헥스: 마녀왕국'과 '진격의 거인: 자유의 날개'가 각각 4DX로 개봉한다. '헥스: 마녀왕국'은 마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녀 빌리의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비행 장면의 모션과 바람, 섬광, 향기 효과 등을 적용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러 현대미술 한자리에… 50여점 전시

갤러리 까르찌나, 한·러 초대 교류전

한국과 러시아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교류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갤러리 까르찌나는 12일 서울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한·러 초대 교류전(KRAEE)'을 개막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전시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러시아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라브렌티 브루니, 올가 불가코바, 알렉산더 시트니코프와 한국 작가 신종식, 이세현, 박종규, 신형섭, 홍정욱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양국 작가들의 작품 50여점을 통해 서로 다른 예술적 전통과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작가 3인은 소더비 경매를 통해 국제 미술시장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이다.

이번 전시는 2021년 갤러리 까르찌나와 러시아 예술 아카데미가 체결한 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국 작가와 미술계가 예술적 성취를 공유하고 한국 현대미술의 러시아 진출 기반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갤러리 까르찌나는 이번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한·러 교류전을 정례화하고 2027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순회전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러시아 현지 미술기관과 컬렉터를 대상으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작품 유통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시 기간에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음악, 발레 등을 주제로 한 무료 인문학 특강과 전문 도슨트의 작품 해설도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롯데시네마, '수고했수능' 할인 이벤트

수능 맞아 수험생·청소년 할인행사

롯데시네마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및 매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수고했수능'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능 시즌을 맞아 청소년의 극장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 기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을 내려받으면 청소년 영화 관람권을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팝콘 M사이즈와 탄산음료 1잔으로 구성된 수능 콤보와 'SUPER L 팝콘'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카카오톡 인기 이모티콘 '눈멍냥이' 굿즈 콤보 구매 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화 '폭설'과 연계한 관객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폭설'을 예매한 청소년 관객에게 선착순으로 2+1 관람 쿠폰을 증정하며, 이벤트 페이지에 수험생과 후배를 위한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영화 굿즈와 관람권을 제공한다.

청소년 전용 멤버십 '틴틴클럽' 신규 가입자를 위한 경품 행사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신규 가입 후 영화를 관람한 회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올리브영 상품권과 에어팟 맥스2를 증정한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수요를 겨냥해 'SUPER L 올팝 팝콘'도 재출시한다. 기존 L사이즈 팝콘보다 용량을 2배 늘리고 한 번에 최대 4가지 맛을 담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中수출통제로 희토류 이트륨 가격 1년새 9배로↑…日, 韓등서 수입 늘려"
▲美밴스, 이란 안보수장과 대면 회담 검토…레자이는 회동 계획 부인 /사진 뉴시스

▲트럼프 "中 밀수 엔비디아 칩 단속하라"…美 상무, 번번이 뭉개
▲中 최대 쇼핑축제 '광군제' 열기 시들…경기 둔화에 소비자들 지갑 닫아

▲10월 일본 기업물가 7.1%↑…"엔저에 수입물가 24% 급등"
▲대만, 中관광객에 '독립 인정' 각서 요구…中 "정치적 조작" 반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34호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잘 나가는 K-라면
생산확대·해외거점
'양날개'
L1

HLB제약
자체생산 늘리고
신약 공급
L2



도심에 핀 '왕가의 정원'… 산수화 한 폭에 예술 입히다













❶ 팽나무와 현무암으로 꾸며진 '곶자왈원'. ❷ 프랑스 건축가 마크 포르네스의 조형물 '폴리올'이 설치된 '블라섬 가든' ❸ H네이처밸리 석가산. ❹ 서어나무 숲 '극림원'. ❺아트밸리에 위치한 박창식 작가의 설치조각. ❻영국왕립원예협회 정원박람회 수상작을 그대로 재현한 '가든 위스퍼스'. /현대건설, 안상미 기자

아파트의 미학(美學)

디에이치 방배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수역에서 7분가량 걸으면 방배동 언덕 위로 '디에이치 방배'가 모습을 드러낸다. 중앙 진입로에 들어서면 단지를 양쪽에 두고 바위산과 소나무가 길게 이어진다. 단지는 지난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올여름에 초록 잎을 달고 식재된 은행나무 아래로는 노란 낙엽이 쌓이고 있었다.

디에이치 방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6-8 일원에 방배5구역을 재건축해 들어섰다. 지상 33층, 29개 동, 총 306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방배동 정비 사업지 가운데 가장 고층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해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내건 7번째 단지다. 단지 앞 서초대로를 따라 강남업무지구(GBD)로 오가기 수월하고, 단지 아래로는 도구머리공원이 이어진다. 우면산과 관악산 자락이 가까워 녹지를 누리기도 좋은 입지다.

방배5구역 재건축… 총 3064세대 대단지
왕가의 정원 '로열 보태닉' 콘셉트 조경 조성
야외미술관 방불케 하는 예술작품 곳곳 배치

디에이치 방배의 조경은 야외 미술관을 떠오르게 한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조경 개념인 '현대미술관'에 왕가의 정원을 더한 '로열 보태닉' 콘셉트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이 곳곳에 배치됐다. 중앙의 축을 따라 곧게 뻗은 '왕가의 길'을 중심으로 '왕가의 숲'과 '왕가의 정원'이 펼쳐진다.

왕가의 길은 디에이치 방배의 주요 공간과 일상의 동선을 연결하는 중심축이다. 단지를 십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두 녹지축 'H 네이처 밸리'와 'H 아트 밸리'로 이뤄졌다. 언덕 지형의 높낮이 차이는 그대로 살렸다. 녹지를 계단처럼 층층이 앉히고 물길을 위에서 아래로 흘려 보내 단지 안을 걷다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을 따라 풍경이 조금씩 바뀐다.

H아트밸리는 십자형 녹지에서 세로축이라고 보면 된다. 계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중앙 진입로의 '워터 게이트'에서 시작해 '비스타 갤러리'를 지나 클럽하우스까지 이어지며, 축을 따라 수경시설과 미술작품이 차례로 놓였다. 워터 게이트는 '디에이치(THE H)' 로고가 걸린 구조물 아래로 물줄기가 떨어지는 공간이다. 비스타 갤러리의 계단식 낙수 시설 위에는 박창식 작가의 설치조각 '풍요-아퓨런드 드림(Opulent Dream)'이 자리했다. 솟아오른 물방울이 여러 갈래로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길이가 34m에 달한다. 축 끝 클럽하우스 앞에는 미러폰드를 두고 박선기 작가의 '큐브 타워'를 세웠다.

가로축이 협곡의 풍경을 담은 H네이처밸리다. A블록과 B블록 사이 진입도로를 따라 조성됐으며, 국내 최장 규모인 340m 석가산이 펼쳐진다.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모티브로 쌓은 석가산 사이에 폭포와 분수를 두고 금강송을 심었다. '산수화첩(山水畵帖)'이라고 이름이 붙은 구간이다. 두 블록 사이에는 덮개공원 'H 브릿지'를 놓아 도로로 나뉜 단지를 하나로 이었다.

왕가의 정원은 계절의 변화를 담은 풍경으로 주거동 사이와 산책길을 따라 이어진다. '가든 위스퍼스(Garden Whispers)'는 영국왕립원예협회 정원박람회 수상 작품을 그대로 재현했다. 가늘고 흰 기둥을 물결 모양으로 세우고 그 사이에 꽃과 풀, 나무를 심었다.

'옐로 큐브(Yellow Cube)'는 은행나무 24주를 사각형으로 둘러심은 정원이다. 안쪽에 의자를 두어 머물 수 있게 했고, 가을을 맞아 은행잎이 이미 노랗게 물들었다.

단지 가로지르는 십자형 두 녹지축 공간 구성
지형 특성 살려 계곡 재해석한 'H아트밸리'
국내 최장규모 석가산 펼쳐진 'H네이처밸리'
전국서 공수한 상징목에 국내외 작가 작품도

'시그니처 가든'으로는 공간마다 다른 재료와 형태, 식재를 담았다. 블라섬 가든에는 프랑스 건축가 마크 포르네스의 조형물 '폴리올(FOLIOLE), 2026'이 설치됐다. 알루미늄 부품 2155개를 리벳 6만850개로 엮은 쉘 구조물로 그의 작품이 국내 주거단지에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밸리 가든은 고흥석을 켜켜이 세워 전통 석가산을 현대적으로 풀어냈고, 콜로네이드 가든에는 회랑형 퍼걸러가 열주처럼 늘어서 있다.

왕가의 숲은 전국 각지에서 공수한 상징목과 정원이 어우러진다. 상징목은 경주의 팽나무, 강릉의 소나무, 50년 넘게 자란 함양 살구나무, 높이 30m의 산청 메타세쿼이아 등이다. 제주에서는 팥배나무와 곰의말채나무, 팽나무, 신갈나무를 들여왔다. 서어나무 군락으로 숲을 이룬 '극림원', 팽나무 아래 현무암 사이로 계류가 흐르는 '곶자왈원', 너럭바위와 철평석을 놓은 '노송암석원', 계수나무 사이로 물길을 낸 '계수나루길'이 단지 곳곳에 자리했다.

정원 사이사이에는 국내외 작가의 작품과 디자이너 가구가 놓였다. 어린이 놀이터는 호주 아티스트 듀오 크랙 앤 칼(Craig & Karl)과 협업해 원색과 기하학 패턴으로 꾸몄다. 캐나다 작가 안젤라 블록의 'Stack' 시리즈, 신타 탄트라의 'Light over Bangbae'도 주요 공간에 배치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vs 96라인 갈등 일단락…"같은 목표 향해 나아갈 동료"
▲한국, APBC 첫 경기 호주에 7-8 석패…'6회 6득점'에도 역전패 /사진 뉴시스
▲오스틴, 외인 타자 역대 최고 연봉 200만 달러에 재계약…5년째 LG와 동행
▲임윤찬 '골드베르크 변주곡', 애플 뮤직 클래시컬 '올해의 앨범'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개콘'·'왕사남' 등 10명
▲AI 시대, 국내 최대 융합예술 축제 '언폴드엑스' 열린다